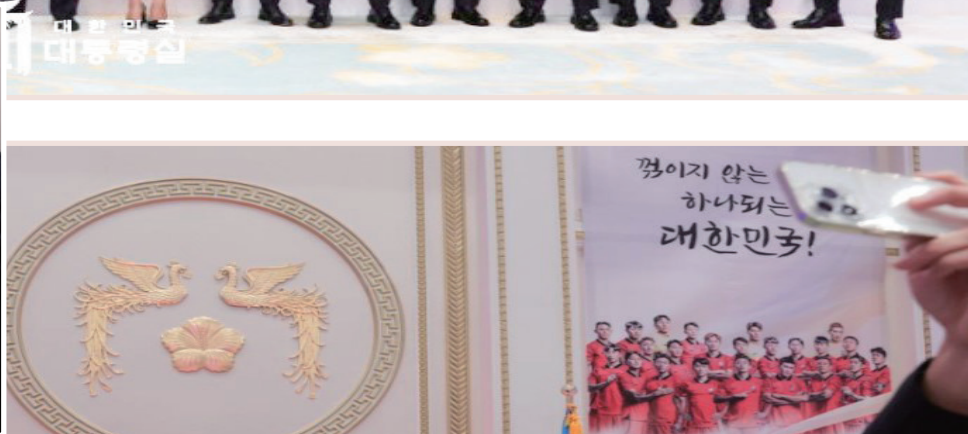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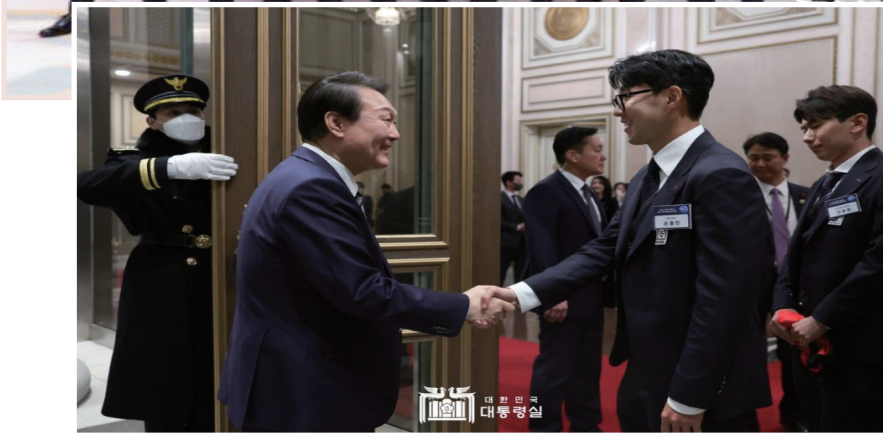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

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꿈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

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께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

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만찬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 전 당시 자신이 착용한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의 왼팔에 채워 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을 처할 때마다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보여준 투혼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여러분의 젊음과 열정이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월드컵 우승팀"이라고 격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축구는 세계 인류의 공통 언어인 동시에 노래이자 춤"이라면서 "여러분은 운동선수를 넘어 평화의 전도사이고 모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분들이다.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4년이란 긴 여정을 함께 해준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손흥민 선수는 "4년 동안 저희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대통령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더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의 막내 이강인 선수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축구공을 선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답례로 친필 서명을 담은 대표팀 유니폼을 손흥민 선수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유니폼에 'Again Korea 카타르 16강 진출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을 가슴으로 받아 트레핑하는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새벽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면서 울컥했다"면서 "그날의 감동과 기억은 우리에게 깊이 남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경기를 떠올리며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자긍심과 격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가나전에서 두 골을 넣은 큰 인기를 모은 조규성 선수에게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 선수는 "흥민이 형이 제일 잘생겼다"고 했고, 손흥민 선수는 "민재가 (외모는) 1등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재 선수는 "저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만찬의 주 메뉴는 돼지고기 보쌈이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할 때 직접 '벤투 감독님 파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규성 선수 등과 어깨동무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수들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을 먼저 떠나는 대신 국가대표팀 21명을 일일이 배웅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대표팀이 귀국 비행기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있어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새마을회 주관으로 9일 문경 국군체육부대 실내체육관에서 2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들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경북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게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먼저, 정부포상인 새마을훈장에 새마을지도자성군협의회 양희완 회장, 새마을포장에 예천군새마을부녀회 강석자 회장, 칠곡군새마을부녀회장춘화 회장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또 대통령표창에는 새마을지도자청송군협의회 윤준환 회장 외 4명, 국무총리표창은 경북새마을회 김민성 이사 외 7명,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새마을지도자진북면협의회 임재완 새마을지도자 외 4명이 수상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으로 도정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한 공로로 새마을지도

자들에게 수여되는 경북 새마을대상은 포항시연일읍새마을부녀회 김경란 회장과 2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새마을단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 경산시새마을회, 청도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김천시협의회, 김천시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영권지부가 수상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각종 시책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결과,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 새마을 환경살리기 활성화,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상주시와 의성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김천시·문경시·성주군·청도군, 우수상에는 안동시·구미시·영주시·예천군·고령군·칠곡군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그간 경북 17만 새마을지도자들은 군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봉사단을 구성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도배, 지붕 및 수도 개보수를 지원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재활용품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김장나누기, 에너지 절약, 불우이웃돕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산불,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누구보다 먼저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덕분이며, 나 자신보다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대폭 확대한다

8일 2천여 마을 성과보고회...2023년 3천개 마을에 150억 지원키로

전라남도도가 지역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마을을 대폭 늘리고 지원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 전정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시장·군수, 사회단체장, 으뜸마을 대표와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대회를 개최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가꾸기 특화 사업(인식전환·환경정화·경관개선)이다.

성과나눔대회는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영상 상영, 우수 시군 시상,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전남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 으뜸마을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자리로 치러졌다. 전남도는 올해 2천여 마을을 지원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기반으로 2023년에는 3천여 마을로 확대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도 올해 60억 원에서 2023년 150억 원으로 크게 늘려 마을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우수 시군 시상에선 곡성군이 대상, 해남군과 함평군이 최우수상, 광양시, 영광군, 완도군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사업 활성화를 청정전남 실현을 위해 헌신한 28명(공무원 6, 민간인 22)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진행했으며,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50개 마을대표에게 우수 마을현판

을 제공했다. 또한 마을 참여도 및 추진단 운영, 홍보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곡성군과 함평군의 우수사례를 통해 으뜸마을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올 한해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화합을 통해 2천여 으뜸마을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마을별 지원금을 늘리고 우수 으뜸마을도 대폭 추가해 선정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으뜸마을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피관수도부터 형성되어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 힘, 남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제31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12월 9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됨)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호수밀도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한 앞선 개정안과 연속하여 정비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시 주거정비 지수 평가 주요 항목인 노후도 산정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반영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중·동·서구·영도구 등 원도심의 실정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등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은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시 피관수도부터 형성된 무허가건축물이 많아 주거정비지수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모의의회 활동 우수 학생 시상

초·중학생 체험수기 우수자 10명, 대학생 의정활동 우수의원 6명 선정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학생 모의의회 우수 학생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초·중학생 우수 체험수기 부문 10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대학생 모의의회 활동 우수의원 부문 6명(조선대 3명, 전남대 3명) 등 총 16명이다.

초·중학생 모의의회 우수 체험수기는 올해 모의의회 참가한 광주 송원초, 일동중에서 제출된 17편의 체험 소감문을 대상으로 시의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편을 선정했다.

또한, 대학생 모의의회 활동 우수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대학생 모의의원들이 펼친 의정 활동을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6명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무창 의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회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친숙



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초·중학생 모의의회

를 진행 중에 있고, 작년부터는 조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후 참여 대상에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모의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수/기자

전라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위, 국회 방문 활동

공공의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 참관 위원 사전 설득 및 공공의대 유치 촉구 활동 펼쳐



전라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9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사전 설득 및 공공의대 유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회 방문은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유치 호소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날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물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함께 다루어져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만, 기존 서남대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대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과 양해석 의원은 “공공의대 유치는 우리 전라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이고 국회를 찾아 소관 위원회 위원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

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1월에는 남원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고자 공회를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강훈식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과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재 위원, 김정수 위원, 김만기 위원, 이병철 위원, 황영석 위원, 나인권 위원, 오은미 위원, 양해석 위원, 김명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남출/기자

유정희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교통복지 실현 위한 경전철 난곡선 조속 추진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2월 8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정태호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난곡선 경전철 사업 확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선은 서울 경전철 신림선의 지선으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 교통사각지대인 관악구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계획됐다. 2018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최종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유정희의원은 “서민의 발이 되어 주는 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이 아닌 주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난곡선이 꼭 필요하다는 서울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 모두의 절실함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통, 주거, 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난곡선 사

업 조속 추진은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이어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상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며,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내용의 다양화는 물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며, 경북청년사관학교와 관련하여 명칭이 군사용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지출을 한 적이 없다고 현재 경쟁력 남북관계를 벗어나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경북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 위탁사업이고 이런 용역사업 외에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용역에만 치중 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하루 빨리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하여 대구대와 금오공대 두 곳 뿐인 점을 지적하며, 대학의 선정 범위가 넓히고 전공 분야도 다양화하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직장 청년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대부분의 청년정책 사업이 경제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위 사업을 위탁하면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등 모순이 발생한다며 실제 사업의 목적보다 수탁 기관에 배분되는 사업이 아닌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사업 중 수소 및 전기차 보급 사업이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완속보다는 급속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실국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 후 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 전세보증금 및 홍보비 지원 등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홍보를 통합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시료 채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고, 폐농약 용기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농가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됐다며, 잔류 농약의 하천 유입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처리에 대한 매뉴얼 배부 와 함께 예산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아스콘 및 레

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 업체에서는 시설의 고비용 문제 등으로 설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과 관련하여 배스 낚시대회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는데, 잡은 퇴치어종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시 놓아 주는 등 사후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1천만원의 예산과 400건의 검사 계획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북이 동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 중 소규모 용역 사업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 경북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고, 통합신공항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신공항이전지인특위 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정책자문단과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 전문가들과 경북청년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사 등 각종 악취와 관련해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없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농가에서 특작물에 치우치지 않고 콩이나 보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기술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전 (112) 문화부:대전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전 (113) 부동산부:대전 (117)
 경제부:대전 (114) 오피니언부:대전 (118)
 스포츠부:대전 (115) 지방부:대전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 '좋은 어른신 일자리' 참여자 3,043명 모집

34개 사업 3,043명 모집

금천구는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3,043명 모집한다.



모집한다.

모집 분야로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활동',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연계해 주는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이다.

공익활동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사 환경 미화, 초등학교 중식 배식 업무 등 20개 사업, 2,173명을 모집한다. 또한 사회서비스형은 만65세 이상(일부 사업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돌봄, 안전, 공공시설 행정업무 지원 등 5개 사업, 386명을 모집한다.

시장형은 만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편의점, 카페 등 8개 사업 356명을 모집한다. 취업알선형은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업체와 취업 연계를 통해 128명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자자는 소득 수준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선발된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좋은 어른신 일자리' 지속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중장년 창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서울시, 점프업5060 4년 성과 공유

서울시50플러스재단-LH, 2019년부터 중장년 창업 돕는 '점프업5060' 사업 추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추진한 '점프업5060'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4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점프업 5060' 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중장년 창업자를 발굴, 선정하여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실습 과정을 통해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4년간 '점프업5060'을 통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112명(107개 팀)의 중장년 창업가들을 선발, 지원했으며 94.4%의 창업률(사업화 지원팀 기준)을 달성했다.

'점프업5060'은 지역 활성화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중장년(만 50~64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발했다.

1단계 창업교육(트레이닝캠프, 집합교육, 현장탐방, 현장실습 등), 2단계 고도화 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를 구체화하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9년부터 총 3기로 운영하는 동안 1단계 교육 시간 총 700시간, 교육 수요율 91%, 컨설팅 횟수 244회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2단계 창업팀 36팀에게 총 7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했다. 2단계 사업화 지원을 통해 36팀 중 34팀이 창업하여 창업률 94.4%의 성과를 달성했다.

'점프업5060'은 창업 교육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창업의 70% 이상이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창업에 필요한 통합 지원을 통해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기존의 과밀·과열 업종의 생계형 창업과 달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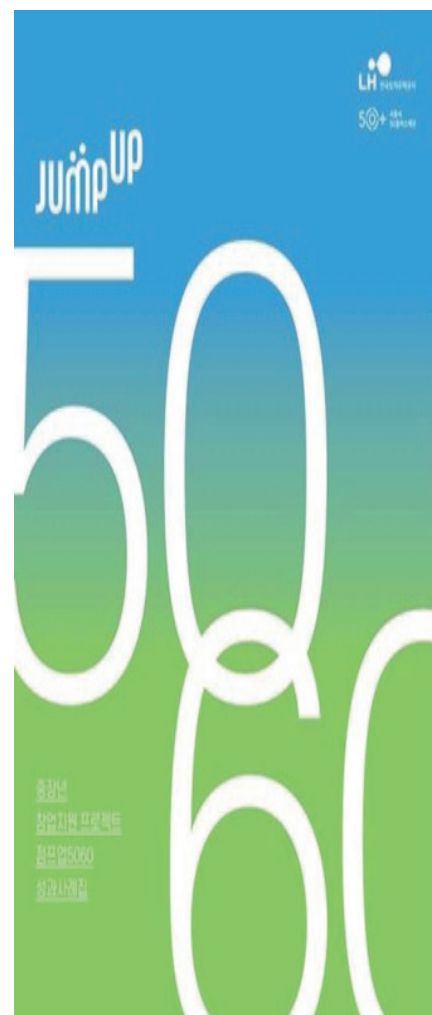
재단은 '점프업5060'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창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성과사례집을 제작하고 50+포털을 통해 공유한다.

성과사례집은 지역 발생 폐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고체비누 판매를 앞둔 환경기업 창업, 청소년 대상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돕는 쿠킹테라피 심리치료연구소 창업 등 1~3기 창업자들의 우수 사례와 성과를 소개한다.

발간된 책자는 50플러스캠퍼스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12월 7일부터 50+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점프업5060을 운영하며 중장년 창업의 가능성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장년 세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세대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중장년 창업의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송파구-송파경찰서 손 맞잡고 구민안전 확보 나섰다

송파구-송파경찰서 유기적인 협업으로 재난대응역량 강화

송파구와 송파경찰서가 손을 맞잡고,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안전 확보에 나섰다.

송파구는 송파경찰서와 함께 12월 8일(금)에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재해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한 '도시안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이종원 송파경찰서장을 필두로 양 기관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의 생활안전과 재해 대처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협업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구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연과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송파구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예상 과밀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실시 등 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힘을 모았다.

향후에도 구는 송파경찰서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구민 안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 및 범죄로부터 24시간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며, 도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송파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마포구 홍보대사 김홍국, 박상민이 만드는 가슴 따뜻한 콘서트

공연 수익금 전액 '마포구 어르신 효도밥상' 지원을 위해 기부



유클·통쾌·상쾌한 대한민국 대표 콧수염 가수 '양털' 김홍국, 박상민이 오는 12월 13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자선콘서트를 갖는다.

2022년 마포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홍국과 박상민이 '어르신 효도밥상' 지원을 위한 자선콘서트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공연이다.

이날 공연에는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해바라기', '무기여 잘 있거라', '청바지 아가씨' 등 두 가수의 대표곡은 물론이고 공연을 빛내주기 위해 특별게스트의 무대가 더해진다.

추운 겨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음악과 솔직한 입담으로 채워진 김홍국, 박상민의 양털쇼가 양털처럼 포근한 시간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전망이다.

이번 양털쇼 공연 수익금 전액이 지역 내 어르신 효도밥상을 위해 기부될 예정으로 두 가수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다. 김홍국과 박상민은 "마포구 홍보대사로서 마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앞으로도 공연, 방송 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상수 마포구청장은 "두 분이 연 말을 맞아 어르신 효도밥상 지원 비용 마련과 구민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재능기부 해줘 감사하다"며 "두 분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마포구 곳곳에 스며들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마포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국, 박상민 양털쇼(TWO MAN SHOW)'의 티켓은 전석 3만원으로 양미 관객 30%, 마포구민 40%, 경로(65세 이상) 50%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예매는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조성순/기자

중구 명동 노점, 안전을 우선한 통큰 결단!

서울 중구가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명동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안전 보행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명동거리가 최근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로 복적이기는 가운데 이태원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선제적으로 안전 거리를 확보한다.

특히 명동에 즐비하게 늘어선 노점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안전 최우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명제 노점상과 논의 끝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12.24.(토) 전체휴업, 12.31.(토) 감축 운영에 합의했다.

이는 크리스마스이브와 새해 전야가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자발적으로 시민 안전을 우선한 통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노점상인들은 코로나19 침체 회복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사업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내 가족이 걷는 길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동참을 결의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태원 사고를 뼈아픈 고통으로 새기고 어려운 결단에 동참해준 노점상인들로 인해 명동에 훈훈한 성탄절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 노점상의 휴업 협조로 관광객과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서초역사거리 횡단보도 신설... 사통팔달 뺨 뚫려

대법원서 법원등기소 방면 기존 지하도 및 500m 돌아가 길 건너던 주민 불편해소

"드디어 지하보도를 오르고 내려가는 불편이 사라졌네요.", "그 동안 한 쪽에만 횡단보도가 없어 빙빙 돌아서 다녔는데, 바로 건너다니 너무 좋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2년간 숙원이었던 서초역 사거리의 대법원에서 법원등기소 방면에 횡단보도 추가설치를 완료해 4일부터 주민들에게 개통했다고 밝혔다.

서초역사거리는 지하철 2호선이 운행하고, 하루 4만여명의 보행자와 12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지다. 그간 서초역 사거리는 2010년 처음 횡단보도가 설치됐지만 사거리 북측을 제외한 3곳만 설치됐다. 지난 12년간 보행자들은 대법원과 법원등기소 사이 30m 거리를 건너기 위해 약 500m를 우회하거나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는 인근 대법원과 법원등기소,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각종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찰청과 서울시에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

구는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

정체 및 사고위험 해소를 위한 교통량과 시설현황 조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서초대로 좌회전 대기차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추가 확보, △서초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정차면 신설, △도로선형 조정 등 교통정체를 해소하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대안을 경찰청과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렇게 수립된 교통대책은 올해 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최종 통과됐고, 서울시 예산 3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11월 공사를 시행해 횡단보도를 개통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박상혁 의원의 이번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방면의 지원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보행 편의와 원활한 차량통행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방배동 서래초등학교 인근의 방배로 횡단보도를 올해 7월 개통하는 등 지난 5년간 총 18개소에 횡단보도를 신설했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초역 사거리 횡단보도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지역구 시의원들의 협조로 설치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용인특례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전국 1위'

행안부 장관 표창·특별교부세 5억 확보...경기도 평가서도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국 1위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용인특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대응조치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11곳을 선정했다.

시·군·구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용인특례시는 폭우가 내릴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세월호 등 상습 침수구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저지대 침수에 대비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도 가점 요인이 됐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첫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지구 동천동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

구를 지휘했다. 태풍·호우 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부서별 사전 조치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

어 어려움을 살피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경기도의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시사 표창과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시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해 온 덕분에 전국 1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과 하천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빠른 수해복구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구현

iH는 검단 주택건설사업(AA10-1BL)을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에너지 절감 계획을 통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확보하도록 계획했고 내년 상반기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단일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단일 및 기밀성능 강화했으며, 자연채광성능을 개선하여 겨울철 난방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LED 조명 100%, 세대 열회수장치, 단지 내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시키는 액티브(Active)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건물 옥상부와 입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PV) 및 지열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을 통해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자급자족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내년부터 공공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검단 주택건설사업(AA10-1BL)은 현재 의무화 대상은 아니다.

iH 관계자는 "검단 주택건설사업(AA10-1BL)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내 우리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계획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종남기자



광명시의 자치분권 활동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모색

자치분권 활동가 60여 명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저

광명시는 지난 8일 열린시민청 강당에서 '2022년 자치분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광명시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 한해 자치분권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자리이다.

워크숍에서는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자치분권대학 광명캠퍼스 수료생, 광명자치대학 수료생, 각 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등 광명시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 공감 토크 ▲자치분권 공감 특강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자치분권 공감 토크에 참여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민분들께 늘 감사하다"며, "광명의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더 많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 도시를 위한 방안 모색 ▲주민세마을사업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정책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광명시 청년 지원 정책 ▲10·10·10 소동 캠페인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ESG 운영 방안 ▲마을공동체의 파괴와 회복 방안 등 10가지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자치분권 공감 특강에서는 영화 울지마 톤즈의 감독인 구수환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 이사장이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하이테크 신부의 헌신적인 삶을 짚어보며 공감능력의 중요성과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뜨거운 감동을 자아냈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교육에서는 소진광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주민자치 실천하기'를 주제로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주민 주권 실현이 무엇인지와 함께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민참여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주민자치가 답이라



고 강조하며,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워크숍에 참여한 김○○ 활동가는 "오늘 워크숍 프로그램이 알차고 강의 내용도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광명자치분

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을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를 발간했으며, 전 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 주민세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며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8개 품목 선정

시 홈페이지에 21일까지 공급업체 모집공고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위원장 안성시농민단체협의회장 우순기)를 개최해 2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답례품목은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농특산물(쌀·배·배추·홍삼·포도·한우·한우육포)과 농특산물(쌀·한우), 농특산 가공품(곰탕·배추·배가공품·과일청·한과·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참기름·들기름·공기름), 공예품(유기·칠보), 문화관광상품권(안성맞춤아트홀 공연관람권,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관람권, 안성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이용권, 팜랜드 이용권), 안성사랑카드 포인트 등이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역 대표성, 기부 유인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에 21일까지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전에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허오욱 안성시 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내 많은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 질 좋은 답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기부제 정착 및 안성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선정 "국비 2억 확보"

오산시가 2023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코딩 프로그램, AI 교육 활성화 등 특화 교육 추진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오산시는 민선 8기 들어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건설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을 알렸다. 교육정책 방향을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목표로 정한 가운데 '미래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 연계 사업인 '방과후학교 지역 연계 특화지구'에 선정돼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받는다.

미래교육지구와 관련, 오산시는 '모두가 특별한 오산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오산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오산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교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교육부와 타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 기조에 맞춰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오산시는 일반교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AI 교육 지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학교 특색 교과과정 지원, 지역맞춤형 인재 키움, 코딩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제 오산시장은 "오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이들이 지닌 특기와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미래교육지구를 계기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사업이다.

양시현기자



2022 안양시 자원봉사자대회 성료...화합·열정의 장 열려

최대호 시장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자 1천여명이 한해 봉사활동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9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8일 14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안양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한해 봉사활동을 되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로, 1부 자원봉사자 표창에 이어 2부 장기자랑대회가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취약계층 돌봄 등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13개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64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해온 자원봉사자 53명에게 자원봉사양, 자원봉사금장, 자원봉사은장 인증패가 수여됐다.

자원봉사양에는 누적 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을 달성한 신찬선, 박오애, 이희근, 정순이, 박종래씨가 뜻깊은 인증패를 받았다. 5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금장에는 한기봉 등 12명이, 3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은장에는 강신성 등 36명이 인증패를 받았다.

2부 장기자랑대회는 사전 예선을 거친 열정의 자원봉사자 11개 팀이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만들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는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 시에 큰 힘이 되고 시가 발전하는 뜻깊은 한 해였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는 295개 봉사단체 19만여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지난 11월 한

국자원봉사센터 주관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에 선정됐다.

신우용기자

임태희 교육감 “인성과 역량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민교육에 역점 둘 것”

디지털 시민 원팀(One-Team) 출범식 참석해 선언문 발표

- 7일,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디지털 시민 원팀’ 출범식 열려
- 디지털 시민 활동과 확산, 올바른 디지털 문화 확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선언
- 임 교육감 “인성과 역량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민의식이 중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One-Team)’ 출범식에 참석해 “인성과 함께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구현모 KT 대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임재성 서울교대 총장, 운동섭 연세의료원장,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김연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교육, 기업, 의료, 법률 분야의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디지털 시민 추진 배경과 디지털 시민 원팀의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이어 참여기관 대표들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 후 이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디지털 시민 활

동과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디지털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등 네 가지 내용을 담았다.

참석한 기관 대표들은 미래세대가 더 나은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라며, “경기교육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석삼조의 발전소 유치사업. 경기동북부지역에 기회제공. 불균형 해소 기대”

김동연 지사 8일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 서명

경기도가 여주·포천·연천 등 3개 시·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인근 1천50세대 주민들이 이르면 2025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해당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인데 발전소 유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세대당 연간 9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김충우 여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전동수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사극진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유치 노력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주)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81,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에 각각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주)대륜이엔에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주)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 말단에서 연료전지발전소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이들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도시가스 판매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가스사가 발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게 됐고, 이 설치된 배관을 통해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로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협력했다.

사업 규모는 총 1천96억 원으로 한국동서발전은 협약 이후 인허가와 설계 절차 등을 거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 후 도시가스 배관을 포천 7.3km(600세대), 여주 4km(400세대), 연천 2.2km(50세대) 규모로 각각 설치한다.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화 되면 주민들은 현 액화석유가스(LPG)통 구매 방식 대비 연간 9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는 물론, 연료 구매에 대한 불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3곳의 발전소 설치 및 가스배관 설치·연결은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 준

비에 들어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 50% 미만인 경기 북동부 5개 시·군(포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을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4.8%이지만 이들 북동부 5개 시·군 평균 보급률은 42.5%다. 경기도는 지난 6월 5개 시·군 대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지확보, 주민동의, 열 공급, 시·군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여주·포천·연천 지역을 발전소 유치지역으로 최종결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관심 두는 곳이

경기 동북부다. 기회 제공을 통한 불균형 해소의 모범을 경기도에서 보였다는 저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유치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며 “첫째로는 에너지 불균형을 비롯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포천은 산업단지, 여주는 스마트팜, 연천은 도축장 등에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공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측면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경제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송년 총회개최

지난 9일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조혜영)는 용인중앙행정복지센터에서 임원 및 단체장 그리고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1998년 9월25일 창립되었으며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장들의 모임체 협의회다.

지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었던 조혜영회장은 2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노후된 담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벽화그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중앙시장상인회와 함께 환경정화 캠페인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한 가족 집밥 오늘이 내생일’이란 타이틀로 손수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150여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했으며,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반려식물을 기증 받는 등 지역사회 여러단체와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알리는데도 열정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행사를 통하여 김장 1,500kg 150박스를 지역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김장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수 있도록 160여가

구에 전달하는 등 릴레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총회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장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장 표창장 그리고 문, 운영위원, 임원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023년부터 용인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참석회원 모두의 추천으로 김종필 수석부회장을 제 11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제 10대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임원진으로는 회장 조혜영, 수석부회장 김종필부회장 박종찬, 사무처장 성남희, 사무국장 최완자 감사 김태근 이다.

조혜영기자

[수원특례시] 고등학교 교사가 목검으로 여학생 등 폭력 일삼아 충격

- 학교 측은 교육청 신고 의무 위반 등 규정 어긋며 미온적 대처
- 사건 이후 폭력 교사의 학과 수업 진행 시키다 피해 학부모 항의로 수업 배제

수원시 소재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의 1학년 담임 40대 남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고1 남녀 학생들을 3월 신학기부터 상습적으로 교실이나 과학실 등에서 체벌을 가정한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제의 삼일공업고등학교 김모 교사는 목검 등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학생들을 세워 놓고 비비탄을 몸에 쏘는 열기적인 행각을 매일 같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의 이유도 다양했다. 김 교사는

지각하면 지각을 했다고, 숙제를 안 해오면 숙제를 안 해왔다고, 수업시간에 졸면 졸았다고 목검 등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정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 A 씨는 “지난 11월 30일 수업 시작 전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으로부터 목검으로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딸아이의 엉덩이가 부르드고 검붉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손 한번 대지 않고 딸아이를 키웠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담임 교사

가 무서웠을까 생각을 하면 더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면서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이렇게 담임에게 맞고 지내는 것으로 알았다는 딸의 말이 더 놀라웠다”라고 울분을 토트렸다.

그러면서 A 씨는 “교장 등 학교 측의 대응도 안이해서 오히려 피해 상황을 감추고 속이려만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장은 문제의 김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해임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김 교사의

폭력을 알게 된 11월 30일 이후에도 김 교사가 피해 학생 등에게 계속 수업을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나 교장에게 이를 항의했다”라면서 “또한 교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 발생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반발하고 문제 교사와 교장 등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원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등에 학교 측 교사 관련 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조직적 은폐를 위한 시간 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교장 등의 교내 폭력 상황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성토했다.

또한, 새 학기부터 1년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 매일 지속해서 벌어졌음에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안전부장 등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자체의 허점과 그에 따른 무용론도 제기됐다.

A 씨는 “어떻게 1년 내내 담임 교사의 학생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들은 물론 학교전담경찰관, 안전부장 등이 몰랐을 수가 있는지 더 참담할 지경”이라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일이 불거지고 폭행 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일로 파면이 되면 퇴직 연금을 못 받게 된다. 나를 위해 연금만은 받을 수 있도록 사표로 처리하게끔 탄원서를 써달라’고 사과나 반성 없이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매일 목검 등으로 우리를 때리는 담임 교사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또 교육청에 관련 신고

를 마치고 경찰 고소 등을 진행 중이다. 김동수 교장은 “학생 폭력을 알고 즉시 해당 교사에 대한 담임의 직위 해제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의 해임 중징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학생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대상

수원화성을 '세계유산 스마트 관광모델'로 구현, '터치수원' 앱 출시

수원시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제7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머니투데이(the300-theLeader)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대한민국지도사협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우수정책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목표·내용의 적절성 ▲지역 부합성·전략성 ▲추진 체계·과정 적절성 ▲추진 인프라 수준 ▲성과, 파급성 ▲혁신성·창의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관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스마트관광도시'는 ICT(정보통신기술)와 관광을 접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편의·서비스

를 제공하는 도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세계 최초의 계획 신도시인 수원화성을 '세계유산 스마트 관광모델'로 구현했다. 지난 7월 1일 출시한 수원화성 통합관광 플랫폼 '터치수원' 앱이 '스마트관광도시 수원'의 핵심이다.

앱을 '터치'해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의 관광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영어·일본어·중국어 서비스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콘텐츠는 ▲XR(확장현실)버스 1795형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수원화성 ▲아웃도어 미션게임 '화성행궁의 비밀' ▲수원화성 오디오 가이드 ▲수원화성 수어 가이드 ▲음식점 스마트오더, 체험시설 예약·구매 ▲IoT(사물인터넷) 사물함 등이

여행 날짜, 나이, 동행인 수, 여행 스타일, 가고 싶은 관광지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여행코스를 추천해주는



'AI 추천코스'도 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더 발전시켜 수원시가 '대한민국 스마트 관광의 표준'을

만들어내겠다"며 "많은 국민이 터치수원을 활용해 스마트하게 수원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국토부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 승인

정명근 시장, "서부지역 균형발전 촉매 될 것...남은절차 차질 없이 진행"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이 승인됐다. 화성시는 9일 화성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화성시와 넥스트레인(주)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위·수탁 협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라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 승

인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된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영 승인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서부지역 균형발전에 촉매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서부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은 화성 국제테마파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있는 44.7km의 광역철도로, 여기에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 '교통혁명'으로 여겨진다.

양시현/기자



화성시의회,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시민서포터즈' 출범 축하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시민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포터즈의 출범을 축하했다.

유네스코에서는 작년 7월 한국의 갯벌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2025년에는 화성, 강화, 인천, 아산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러한 화성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하고자 시민서포터즈가 구성됐다.

화성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네트워크 실행위원회 및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화성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시민서포터즈 출범식'에는

화성시의회 의장 및 시민사회 단체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재청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사무국장인 문경오 박사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시민서포터즈 출범 취지 및 경과 보고, 출범선언문 발표가 진행됐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멸종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화성습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라며,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화성습지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개선 시민서포터즈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감지보전이라는 가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글로벌 학습도시 성과공유 자리 마련



고양특례시가 12월 15일(목) 18시부터 '2022 UNESCO GNLC 국제 웨비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웨비나는 UNESCO GNLC 회원도시 76개국 294개 도시가 참여하는 2022년 글로벌 학습도시 활동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라울 발데스 코테라(Raul Valdes Coter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학습도시 이슈와 UNESCO GNLC 동향 및 전략에 대해 알렉스 하웰스(Alex Howells), 에디스 해머(Edith Hammer), 마리 맥컬리(Marie Macauley)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전문원이 발표한다.

글로벌 학습도시의 활동사례를 발

표하기 위해, 모로코의 마라케시시의 파티마 조라 이프라헨(Fatima Zohra IFLAHEN) Cadi Ayyad 대학교 교수, 호주 워던시의 샤린 위트 크로프트(Sharyn Wheatcroft) 실천 학습 커뮤니티 담당, 그리스 라리사시의 클레오니키 치우구(Kleoniki Tsiougou) 평생학습부장과 비키 구타(Vicky Goutha) 평생학습부원이 참여한다.

마라케시는 2022년 UNESCO GNLC 신규 가입 회원도시로서, 지난 6월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의 개최 도시이다. 회의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행동 계획'을 토대로 마라케시에서 평생학습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했던 사례를 공유한다.

워던과 라리사는 각 2021년, 2017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도시로서,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

육의 미래' 보고서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증진 및 학습도시 구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웨비나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통해 한국어, 영어, 불어 동시통역을 지원하며, 유튜브 '고양시 평생학습'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UNESCO GNLC에 2016년 가입 후, 2019년 클러스터 '교육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리더도시로 선정되어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2022년 UN 세계 도시의 날(World Cities Day)' 기념 웨비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세션 도시 대표로 참여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한영기/기자

강화군, 밥맛 으뜸 명품 강화섬쌀 첫 수출

명품! 강화섬쌀이 수출길에 오르며 세계인의 밥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강화군은 9일 대한민국 최고 명품 '강화섬쌀' 20톤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농협조합장, 박용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을 축하했다.

초도 물량은 강화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원에서 생산한 3만 달러 상당의 햅쌀 20톤에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대형마트에서 내

년 1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또한, 내년 3월도 강화섬쌀 2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지난 10월 강화군과 인천시가 캐나다 유통물류업체 'KFT'와 농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출로 이어진 첫 성과이다. 유천호 군수와 유정복 시장이 추진에 앞장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출이 성사됐다. 실무협의체는 강화섬쌀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섬쌀'은 청정 강화도의 맑

은 일조량 속에 미생물·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에서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 북미지역 한인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해외판로 개척으로 세계인에게 밥맛이 으뜸인 명품 강화섬쌀을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과감한 시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수원시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화재대처 합동훈련

영동대·지동대 소속 의용소방대 영동시장에서 훈련



수원시 전통시장 영동대·지동대 의용소방대가 9일 영동시장에서 화재대처,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했다.

수원시와 영동·지동대 소속 의용소방대가 주관한 이날 훈련에는 영동대(영동·팔달·시민상가·남문패션·구천동·남문로대오시장), 지동대(지동·미나리광·못골시장) 의용소방대원과 소방서 관계자, 수원시공직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의용소방대 대원의 개인별 행동요령·지원 임무 숙지 상태 확인을 시작으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화설비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안전 대피요령 등을 훈련했다.

팔달구 소재 9개 시장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수원남문방송국은 이날 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 강용구 안전센터장을 초대해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주제로 생방송 인터뷰를 해 상인들에게 화재 예방 방법을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의용소방대의 주도적인 상황대처 훈련으로 화재 대처·인명 구조 능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1년에 한 차례 이상 전통시장별 합동 소방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영양군,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선제적 대비 제1차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12월 8일 오후 2시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국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제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양군은 2024년도 신규사업 21건에 건의액 1,064억원, 계속사업 24건에 건의액 589억원으로 총 45개 사업에 대한 건의액 1,653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사업으로 영양도서관 건립사업, 국도31호선(입암~영양) 선형개량사업, 마령산해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영양군 동부리 농촌 공간정비사업, 영양 입암 통합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춧가루 가공사업소 저온저장시설 신축, 삼지연 정규파크골프장 조성, 원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죽파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등 2024년도 새로운 영양의 발전을 위

한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양군은 성공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군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도비 지원 당위성 및 논리 개발, 적극적인 중앙부처 및 경북도 방문 등 역점 시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2019년도에 우리군 역사상 최초로 예산 3천억을 넘어선 이후 현재 4천억원대를 달성했다"면서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적극 대응하여 지역현안사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제59회 무역의 날 수출 유공 지자체 선정



청송군은 12월 8일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에서 수출 유공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유공 지자체 선정기준은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규모 및 수출 증가율이며, 청송군은 지난 10월 현재 수출증가율이 전년 대비 47.1% 증가해 도내 '증가율 1위'의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증대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청송군의 주요 수출 품목은 사과, 배추, 고추, 된장, 기타 농산가공품 등이며, 특히 주요 특산품인 사과의 경우 지난해보다 138% 상승하여, 도

내 무역 수출 증가율 1위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기타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도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한 점을 보면, 청송의 대표브랜드인 '황금 사과'에 이어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수출을 다변화 시켜 무역경쟁력을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통상승으로 세계 무역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출 분야에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 및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우수기업 유치 및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 민원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대구 북구청은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2년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행정안전부) 기관인 북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창구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원행정 종합평가'는 민원처리 우수사례 확산과 미흡사항 개선 등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구시가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민원서비스 개선실적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준수율 등 2개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평가

했다.

북구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전국최초 아동 독서습관 키우기 프로젝트 등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으며, 민원처리 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직원들이 다함께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경북여성 평화통일공감 한마당」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는 지난 8일(목) 14시, 경주코모도 호텔에서 경북지역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서정) 주관으로 「경북여성 평화통일공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역 23개 시·군 여성자문위원, 경북 여성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당위성 및 공감대를 형성 하고 평화통일과 관련한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여성의 통일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화통일 공감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 ▲평화통일 한반도 지도만들기, ▲지역 평화통일현장

탐방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서정 경북여성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고, 앞으로도 평화통일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경북 여성들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나가자"고 전했다.

장미향 경북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역할자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통일기반 조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 모집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

안동시는 2023년 1월 13일까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최소 5명 이상이고 구성원 중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동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후 경상북도로 추천하면 경상북도에서 중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1회차) 5천만 원, ▲재지정(2회차) 3천만 원, ▲고도화 2천만 원(3회차), ▲예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자립 지원을 위한 홍보·판로지원·교육·자문(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마을기업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840-6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

을기업 9개소, 예비마을기업 4개소, 총 13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2022년 예산효율화 부분' 최우수 지자체 대상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통해 연간 51억 절감

남해군이 시민단체가 선정한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 수상했다.

남해군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공동대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주관하는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수도물 누수를 줄여 연간 51억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한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8일 표창을 받았다.

남해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278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5년간 남해읍과 3개면(이동면·삼동면·창선면)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은 국비를 포함하는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도를 전산화(GIS)했으며, 데이터를 통한 노후관로 교체가 가능한 실시간 누수감시 시스템과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을 설

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해군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업 전 전국 최저수준이었던 우수율 31%를, 현재 92%로 끌어 올렸다. 61%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어냄으로써 연간 약 260만톤의 누수감소로 5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사업 전 관로 누수 문제가 심각해 전체 급수구역의 60%에 제한급수를 시행 했으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누수를 저감하여 2020년 7월 제한 급수를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등 군민들의 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장충남 군수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물을 안정



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2012년 9월 세금바로쓰기 시민행동으로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세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을 감

시하고 있다. 매년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예산을 집행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시상하는 등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홍준/기자

“봉화군,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 펼쳐”

봉화군청공무원노조 및 봉화군청공무직노조 연탄 2500장 전달

봉화군청공무원노조 및 봉화군청공무직노조는 지난 8일, 봉화읍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전개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연탄배달은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0가구에 2,500장 정도의 연탄을 직·간접으로 전달했다.

하승영 봉화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군이 될 수 있도록 양 노조도 함께 노력하고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이봉래 봉화군청공무직노조위원장은 "경기침체와 기본 생활 물가가 오르는 현실에서 어렵게 살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 노조는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 지역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포항시, 경북도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위해 지역혁신 역량 결집

포항시·경북도 등 지역 30개 산학연관 혁신거버넌스 출범...전문가 정책협의회 선제적 대응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역 산학연관 혁신역량을 결집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허브도시로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출범을 필두로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타당성 분석' 착수보고회,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2',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 경북과학기술단체 포럼 등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포항시와 경북도가 주축이 돼 에코프로, 포스텍, 경북테크노파크 등 경북 지역 30개 기업, 연구소, 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혁신 거버넌스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로, 산학협력 시스템의 구축 및 이차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량의 구심점으로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는 분기별 1회 회의 개최를 목표로 각 산학연관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오픈랩'과 연구·공정·현장 등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R&D 과제 발굴 및 정부 건의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 거버넌스 출범과 함께 개최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2'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글로벌 배터리 선

도시로의 도약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최고 수준인 포항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강점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경북 이차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단지 실무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타당성 분석'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 조건을 검토하는 등 차후 특화단지 공모 절차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달 7일에는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에서 경북과학기술포럼을 시청에서 개최하고,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 과학인들이 머리를 맞대는 등 지역의 산학연관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합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해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허브 역할을 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했으며,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LFP 상용화 지원 구축 사업 유치 등 국가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은 포스텍, RIS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 인프라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도 동해선 철도, 영일만항 인입 철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포항경주공항 및 동해

안 유일의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을 보유하고 있어 배터리 소재의 수출입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허브 역할 수행으로 앵커 기업의 전략적인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차전지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12월 현재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앵커 기업과 중견기업들로부터 4조1,634억 원(MOU 기준)의 기업투자 유치를 성공했고,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배터리 선도도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배터리 생태계 완성과 초격차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포항이 철강산업 도시를 뛰어넘어 미래산업 핵심인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반 시설 구축 및 세계 감면 지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투자, 연구개발(R&D) 등 전략산업의 혁신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타용/기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범군민 서명부 경북도지사 전달

울진군은 지난 12월 7일 경상북도지사실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범군민 서명부를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개최된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원석 경북도의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진범균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군민 2만여 명이 동참하는 등 전 군민이 나서 국가산업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달 중 국토부가 결정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전국 19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으로 평가 대상에 올라가 지난 10월 26일 합동설명회, 11월 23일 현장실사를 마쳤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원자력을 활용



한 국가 청정수소 대량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마지막까지 유치를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남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남부 내륙철도 개통과 연계한 KTX통영역세권의 체계적 개발 첫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경상남도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7일 종합평가를 거쳐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계·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에서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 및 철도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을 광역지자체(7개도)로부터 1곳씩을 신청받아 서류심사,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통영시와, 속초시, 경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의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평가에 대비하여 관계전



문가를 구성하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통영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 모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통영시 용남면, 광도면 일원 30만 1,311㎡(약 9만 평) 규모의 부지에 역세권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그 배후단지에는 복합환승센터 및 웰니스 지역으로 거점, 해양관광(마리나)등 주상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이윤준/기자

군위군 편입 법률안,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하다

- 지난 8일(목), 제400회 국회 정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통과
-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
-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
- 면적 1,498km²로 전국 특·광역시 중 1위 면적 등극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이제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편입되면, 면적이 884km²에서 1,498km²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되며,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적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

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 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 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 내포지판 정비 등이다.

또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북극협력주간(12.5.~9.) 연계 「시민 극지 토론대회」 개최

부산시는 지난 9일 오후 1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2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2) 행사로 「시민 극지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북극협력주간'은 부산에서 열리는 극지 관련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해수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며, 세계 북극 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한다.

북극협력주간 행사가 열리는 '부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한 도시로, 부산시는 시민 극지강좌, 어린이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극지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청소년 북극 탐험대를 파견하는 등 미래 세대에 극지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고 극지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며 힘쓰고 있다.

이번 「시민 극지 토론대회」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2022 북극협력주간 행사 중 「시민의 날」 행사로, 부산시 주최로 개최됐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6팀이 '극지 개발 환경보전' 중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주제



로 기조연설, 토론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펼치며, 심사를 통해 순위별로 부산시장상,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이사장상 등의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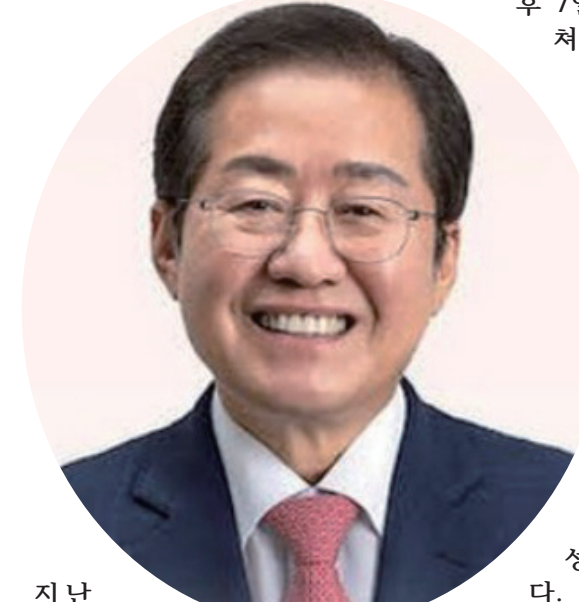
박형준 부산시장은 "북극협력주간이 7년째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만큼, 시민 극지 저변 확대와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의 날'을 '시민 극지 토론대회'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 북극협력주간 기간에는 부대행사로 ▲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부스 ▲ 극지상식 골든벨 대회 ▲ 북극 사진전 등과 같은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또한, 시청 2층 전시실에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2년 극지사진 공모전 당선작과 2022년 부산 청소년 북극 탐험대가 촬영한 사진들도 전시했다.

2022 북극협력주간은 극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www.apw-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종진/기자



지난 8일(목),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1일(목), 법률안

달서구, '2022 지역복지사업 평가' 5관왕 수상

3개 분야 대상, 2개 분야 최우수, 총 5관왕 포상금 13,500만원 받아

대구 달서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 3개, 최우수상 2개를 수상하며 5관왕을 달성했다.

지역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복지사업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상하며, 총 17개 분야 중 달서구는 5개 분야에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달서구는 대상 3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최우수 2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로 5개 분야에서 수상, 총 13,500만원의 포상금을 획득했다.



상당의 영광을 차지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23개동 전체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설치·운영, 신속한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및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돌봄행정, 스마트 기술 기반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선제적 지속가능한 다양한 생활 속 복지서비스 대 상시적 발굴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달서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창출 부문'는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일자리사업과 참여자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한 이중 자립지원 설계로 참여자의 탈수급을 이끌었다. 나눔과 일자리를 함께 구현하는 사업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총력 추진으로 코로나 위기극복과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아 대

북지 내실화에 기여한 노력들이 높이 평가 받았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은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조직협의체 강화, 민관협력으로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자원 발굴 공유체계 구축, 주민이 주민을 돕는 인적안전망의 체계화 등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를 잇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복지사업 5개 분야에서 수상하게 되어 탁월한 지역복지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게 됐다."며, "54만 달서구민과 직원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이며 앞으로 따뜻한 나눔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주시, '해파랑'경주바다'해양정원 포럼'성황리 열려

바다를 활용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콘텐츠 발굴

경주시는 지난 8일 경주해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주10대 뉴 브랜드 중 하나인 '해파랑 경주바다 해양정원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초발표와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10대 뉴 브랜드 사업은 도시마케팅 전략수립과 경주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경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먼저 기초발표자로 나선 황정환(사)경주발전협의회장은 '뉴-경주 브랜드! 문무대왕릉 해파랑 해양정원'이란 주제로 문무대왕 해양정원의 가치와 해양정원 기본구상을 정책 제안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문

무대왕 해양 융복합 문화 콤플렉스로 21세기 새로운 경주를 이끌 자산 찾기와 선제적 고민거리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고경래 전.경주대학교 교수가 도시 브랜드의 특성과 성공 전략을 중심으로 한 경주바다 실현방안에 대하여 발표했고, 문무대왕을 바탕으로 한 경주만의 독자적 상징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끝으로 포럼이 종료됐다.

한편 지난 달 22일에는 '경주10대 뉴 브랜드 워크숍'을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에

는 10대 뉴 브랜드 활용 창작극인 '천년의 물결'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롭고 희망찬 경주, 더 나은 미래 경주의 100년 대계 준비를 위해 경주바다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며 오늘 자문위원과 시민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의성군,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3년 연속 선정 쾌거

의성군은 의성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는 교육부 주관의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경북도내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모사업에 최초로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의성교육지원청과 중간지원조직인 미래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의성ON토론교육, 특성학교과 프로그램 지원사업, 미래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특강 등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마을교육협의체 활성화

를 통해 지방중심의 협력체계 강화 및 교육자치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의성군의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문경시, 3대문화권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문경시는 9일 문경에코랄라에서 '지역과 상상하다. 환경을 고민하다'를 주제로 3대문화권 활성화 사업인 문경에코랄라 청년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사업에 참여한 8개의 청년팀들과 청년들의 멘토 감독단 윤성진 총감독, 조영선 감독, 정현영 지속가능감독과 환경과 축제 특강에 김지연 작가 등이 참여해 지역 청년들과 주민사업체가 협력해 관광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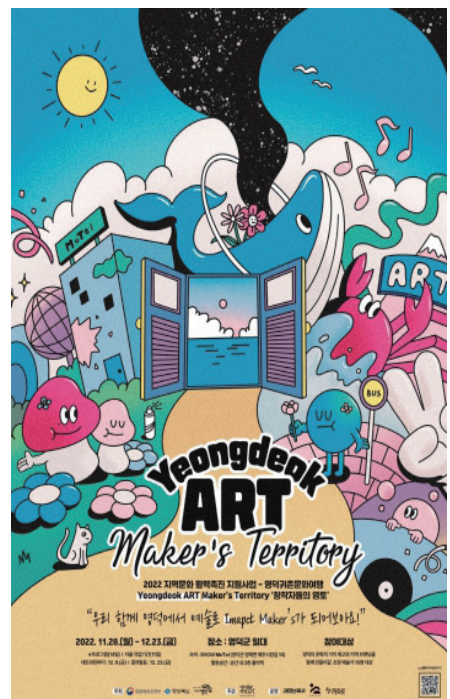
이번 활성화 사업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친환경 플라마켓'메아리마켓', 청년농부들의 '표고버섯 물총개임', 청년들의 기획과 참여로 만들어진 '달라콘서트', 마을 매거진 '터미널' 제작, 뮤지컬 난타공연 '그 시절 나의 아버지는 광부였다', '모두들 위한 특강', '친환경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저탄소 기획공연 '네이처콘서트'(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와 '페비닐 업사이클링 화분 나눔'행사(기후변화센터 후원), '찾아가는 영화관'(영화진흥위원회), 문경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로웨이스트 집부터 시작해보자'이벤트 등 ESG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결론을 앞두고 웨딩촬영 일정으로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현호 청년농부는 동영상 통해 '내년에도 계속 참여해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이봉원기자

예술가들의 영덕 한달살이, 영덕귀촌문화여행 아트앤티 추진



영덕문화관광재단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4주간 영덕에서 영덕귀촌문화여행 'ART Maker's Territory'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을 주제로 창작하는 국내의 예술가 14명을 초대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영해면에 위치한 쇼호텔 내 2층 유희공간(구 콜라텍)을 예술가의 작업실로 명명하고 거점을 둔다.

이번 참여 예술가들은 다원, 공연, 시각 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로 구성됐다.

영덕이 가진 매력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어내고 창작물을 발표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활동에 의지가 있는 작가들로 선정했다.

영덕귀촌문화여행 프로그램은 창작 소재를 찾기 위한 탐방

(Meaning Tour), 영덕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제공 워크숍(Maker's Therapy), 영덕 군민과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파티(Membership Training), 최종 창작물 결과발표(Meomry Time)가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참여 예술가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도 병행한다.

프로그램 외에도 예술가들은 영덕군민과 접촉하여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문화적 일거리를 생산해 낼 예정이다. 참여 문의는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 yd_art_mt나 홍보물의 QR코드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인성을 최우선에 둔 대구미래역량교육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일(목) 오후 2시부터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23 대구미래역량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단설유치원장 및 각급학교 교장 및 교육계획수립담당 부장교사, 교육전문직, 5급 이상 일반직 등 1,3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대구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과제에 대해 안내했다.

서 올해는 학습자상을 새로 설정하여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학습자상으로 설정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핵심 원리로 주도성, 관계성, 자율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5대 전략에 따른 17개 중점과제와 58개 실천과제를 구성했다. 5대 전략은 ▲따뜻한 마음을 키워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인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인 학습역량을 높여 모두의 성장을 도우며, ▲더 넓고 더더운 교육복지로 모든 아이가 희망을 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 또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배움의 장을 넓혀 다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4년간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초석을 다졌다면, 이제 다가올 4년은 기둥을 세울 시기이다."라며, "세계 수준 교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이중심, 교실중심, 세상을 바꾸는 대구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 대구미래역량교육의 핵심과제로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성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학생들이 물질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외에도 지난 4년간의 인제상에

사천시, 전국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경남도 내 시·군 단위에서 1위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 시키고자 매년 전국 지자체와 농협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주요 항목은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비료

품질관리 노력, 사업홍보실적, 사업 점검실적 등 모두 9개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토양환경 적정성,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담당자 교육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022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 내 시·군 단위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둔 것.또한, 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토양환경 개선에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번 수상에 한 몫을 거들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인센티브 사업비와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박원태 미래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전북도, 결핵없는 세상을 위한 크리스마스 씬 모금 동참

김관영 도지사, 결핵 퇴치 씬 모금운동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 부탁

전북도가 결핵퇴치 사업 및 예방 홍보 재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씬 모금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및 임환 대한결핵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크리스마스 씬 증정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결핵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많은 도민들이 크리스마스 씬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씬은 월드컵의 도전과 전진의 역사를 세진,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직접 씬의 모델로 참여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씬 모금에 참여하고,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전북도는 매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씬 모금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12월까지 총 30억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결핵퇴치 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북지역 목표는 1억7백만원이다.

크리스마스 씬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65세이상 취약계층 노인결핵검진 및 결핵예방 대국민 홍보사업 등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 보건당국은 "결핵은 아직

도 발생률*이 높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올바른 기침예절과 손씻기 실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출/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김제시에서 육성하는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고민우)는 2022 귀농귀촌 성과보고회를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귀농귀촌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2022년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한해 동안 이론 성과 발표를 통해 노고를 치하하고 귀농귀촌인들의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펼쳐졌다.

이날의 행사내용은 2022년 귀농귀촌협의회 활동 성과 동영상 시청과 해금연주, 귀농귀촌 활동 분야별 사례발표, 다육 가꾸기 체험 등의 활동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실용교육 등의 성과를 전년도 이루어진 가운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또한 앞으로의 활기찬 귀농귀촌 활동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하 나되어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고민우 회장은 "매년 개최되는 김제시 귀농귀촌 성과보고회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들의 체계적인 귀농귀촌 안정 정착 활동으로 김제시가 귀농귀촌의 최적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금년 한 해 김제시 귀농귀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오신 귀농귀촌협의회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귀농귀촌 정착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김제시 귀농귀촌 정착과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계속해서 김제시의 발전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익산금마고도, 주민 중심 도시재생 성공담 공유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뉴딜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공유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주민들은 9일 금마면 동고도리에 위치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주민공모사업은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주민이 제안하고 직접 실행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공모에 참여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역사문화콘텐츠분과를 포함 총 8팀이 참석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금마고도지역 주민공모사업 추진 및 관광콘텐츠사업 수행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소규모 환경 개선을 위한 백색 코도 디자인을 활용한 목공문패 설치 ▲금마고도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이정표 설치 등 한옥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

이 우수 성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굿즈 개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라미라 행사 기획 및 실행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된 스탬프투어 ▲금마 고유 콘텐츠를 이용한 마을지도 손수건을 관광책, 소외계층에 배포한 홍보 성과 발표가 이뤄졌다.

시는 이번 주민공모사업으로 다양한 주민단체를 지원해 상품 개발 등 관공제 기반을 닦아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 그리고 상인을 포함한 주민까지 함께 화합하는 것을 보며 금마고도지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주민공모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완주군, '지자체 생산성대상 선정'서 최우수상 수상 '전국 톱 3' 반열

유희태 군수 "완주군의 생산성과 경쟁력 인정받은 것, 군민행복에 매진"

완주군이 기초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전국 지자체 생산성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특별시 2개 구와 함께 '톱(Top)3' 반열에 올랐다. 완주군은 또 '생산성지수 측정'과 '우수사례'에 동시 선정되는 국내 유일의 지자체로 등극하는 기쁨을 토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완주군은 '생산성 지수 측정'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완주군은 이날 최고상인 대상을 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최우수상을 받은 영등포구 등과 함께 전국 기초

단체 중 '톱 쓰리(3)'에 포함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완주군은 특히 전국 136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366건 중에서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지역경제 부문'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경이사를 맞았다. '생산성지수 측정' 분야와 '우수사례' 2개 분야에서 동시에 수상한 곳은 완주군이 전국에서 유일했다.

완주군은 전국 지자체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역경제'와 '행정', '행정' 등 3개 역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재정자립도)를 포함해 취업자 증가율과 주민참여예산 수준 등에서 A등급을 맞았다.

완주군은 특히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조해온 '지방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A등급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주군은 또 '삶의 질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겨루는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의 3대 분야 11개 주요 지표에서도 최고등급인 S등급 3개를 받았고, 상위권인 A등급은 6개를 획득하는 등 생산성 측

면에서 우위의 지표를 자랑했다. 특히 평생교육시설 이용 수준을 평가하는 평생교육시설 수와 프로그램 수, 연인원 수 등 3개 주요지표에서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모두 받아 관심을 끌었다.

완주군이 지자체 생산성 측정에서 서를 종로구, 영등포구 등과 함께 '톱 3'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목표로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끊임없이 역량 강화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청렴과 진정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역량을 키우고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이는 재정 역량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출산지원책 강화 등에 적극 나선 게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과 보육시설 이용 수준 향상, 지역안전 강화,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문화기반 확충, 평생교육 확장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하려 노력한 것이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성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경제와 재정, 행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개 주요 지표를 설정해 측정한 생산성지수 평가에서 국내 최고의 지자체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완주군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 위한 생산성 향상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초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통해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오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자치단체란 지역이 지닌 인적·물적·사회적 자본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한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김광수/기자

전주시 드론산업,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연다!'

'2022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9일부터 10일까지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열려

전주시 주력산업이자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국제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캠텍종합기술원 등이 주관하는 '2022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렸다.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여는 K-드론'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정은천 국회의원,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유관기관 및 드론기업 관계자, 미국·프랑스·벨기에 등 해외 14개국 32명 드론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 지 3년여 만에 재개된 것으로,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식정책포럼과 전시·홍보관, 시민 체험 프로그램,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먼저 이덕진 전북대 교수가 주재한 드론-UAM산업 분야의 지식정책포럼에서는 '지역 강점산업과 연계한 드론-UAM 산업육성 전략'을 주제로 전정규 한화시스템 UAM 사업개발팀 부

장과 정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UAM산업 발전 방향과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금식 한국공항공사 차장과 김재형 유캐스트 대표이사, 그리고 고광훈 국토정보공사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산업육성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박장환 명지전문대 교수가 진행한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 포럼에서는 '드론축구 세계화 방안과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 전략'을 주제로 문개성 원광대 교수와 이범수 캠텍 드론사업부장이 발제를 담당했다. 또, Takafumi Inagi 일본 AB7기업 감사, Pascal Rognau 프랑스 Agence faireplay CEO, Mihaly Titkar 헝가리 Pannonia 회장, Patrick Coumans 네덜란드 The Drone Racing Federation 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각 국가별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현황을 공유했다.

올해 지식정책포럼에서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해외 14개국 32명의 드론산업 및 드론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국의 드론 레저·스포츠산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특별세션도 진행됐다.

또한 올해 산업박람회에서는 대한



드론축구협회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팀이 참여하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협력 MOU' 체결을 통해 드론축구 세계화와 2025년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는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한 드론산업 성과를 홍보한 '전주관' △국토정보공사와 농촌진흥청의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을 소개한 '지역관' △20개 기업이 첨단기술의 완성체인 다양한 드론제품을 전시·홍보한 '기업관' △미래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이끌어나갈 전주대와 전주비전대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품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전시·홍보관도 운영됐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드론축구 아

카데미와 3D 펜·프린팅 작품 만들기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전국의 드론축구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2022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 산업인프라 조성 과 기업 육성, 첨단기술을 접목한 상용화 모델 개발을 위한 도전을 계속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전주 드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공모 최우수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농림수산물문화정보원(농정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전북 남원시 정성배(만 40세)씨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통해 예비농에게 영농동기를 부여하고 청년후계농에게 자금심 고취 및 농업·농촌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 5회째 시행하고 있다.

농정원에서는 2018년~2022년 선발된 청년 후계농 선정자 8,600명을 대상으로 2개 분야(신규농, 승계농)를 대상으로 22점에 대한 청년후계농 전체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2점), 금상(4점), 은상(6점), 동상(10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이 함께 수여된다.

정성배씨는 2018년도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 및 후계농경영인 육성 자금을 지원 받아 운봉읍에서 업체류(상추) 시설하우스 1ha를 경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 승계농 분야 영농경영 혁신(고품질 샐러드 상추 상품화) 및 지역 내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 받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작(2점)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되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청년 농업인의 수상을 축하하며, 다양한 영농 정착 사례 및 장애 극복, 성공 과정 공유를 위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우수한 청년 농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이 꿈꾸는 도시 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출/기자



전라남도—기업도시 진입도로 ‘솔라시도로’ 9일 개통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 촉진·조기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한 진입도로가 9일 오후 5시 전면 개통됐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해남 산이면 대진리에서 영암 삼호읍 서호교차로(IC)를 연결하는 총연장 12.19km, 4차로 신설 도로다. 총사업비 3천155억 원을 들여 2015년 12월 착공, 이날 완공돼 총공사기간만 7년이 소요됐다.

지난 2월 지방도 801호선으로 지정 고시되고, 6월 ‘솔라시도로’로 광역도로명이 부여됐다. 주요 시설물은 영암로를 가로지르는 연장 2.2km의 더블리브라이프인 솔라시도 대교 등 교량 5개소, 평면 및 입차 교차로 5개소다. 이번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통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에서 무안 남악, 영암 삼호 도심을 거치지 않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접근이 가능해져 기존 40분에서 30분으로 10분 정도 단축돼 투자 촉진 및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여기에 인근 해

남, 완도, 진도 등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투자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되고, 그만큼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세계 제일

의 미래도시로 우뚝 서는 날도 빨라질 것”이라며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남이 더 멀리 더 높게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탄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해남군 “민선8기 이끌 성장동력 찾아라”

2023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 내년 379건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해남군이 5일부터 9일까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 해남군이 중점 추진하게 될 379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효율적이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민선8기의 주요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해남군의 새로운 동력이 될 115개 공약사업과 내년 주요사업을 연계해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내년은 민선8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민선7기 역대 최대 군정성과를 민선8기에는 지역의 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의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내년 해남군의 분야별 주요사업은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을 통한 소통공감과 윤리경영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식품 수출기반 확대 및 판로 개척,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활성화,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농업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지속가능 관광콘텐츠 개발, 사계절 대표축제 브랜드화, 땅끝해남 공동대축제 추진하며,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적극 발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사람중심·나눔복지를 구현하고, 농식품 이후변화대응클러스터 조성, 기업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재검토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업무는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해 12월 말 최종 확정 후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2023년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위해 바나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광남/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백방으로 뛰는 운병태 나주시장

6일 베트남 박간성 응웬 당 병 인민위원장과 간담회

운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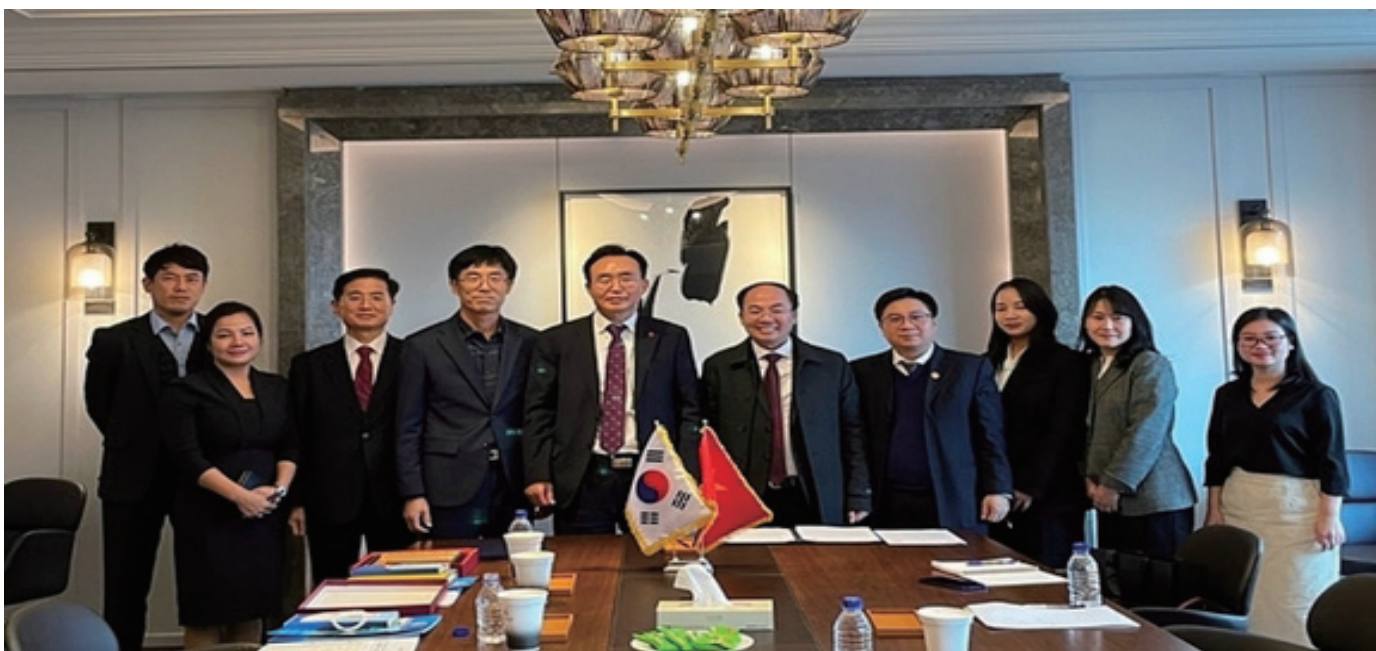
지난 달 필리핀 팜팡가주 2개시(구 아구아·산루이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첫발을 뗀데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에 교류 손길을 뻗었다.

나주시는 지난 6일 운병태 시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박간성’ 응웬 당 병 박간성 인민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운병태 시장,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베트남 측 응웬 당 병 박간성 인민위원장, 다오 쯡 티엔 대사관 상무관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북부 수도 하노이 정북쪽 160km에 위치한 박간성은 인구 약 31만명에 1개 시, 7개현으로 구성된 산악지형 도시로 전체 인구 83%가 농업에 종사한다.

운병태 시장과 응웬 당 병 인민위원



장은 간담회를 통해 나주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창출과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운 시장은 “베트남 박간성 지역 계절 근로자 도입은 우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가 간 인력 교류 문제는 무엇보다 근로자 권익 보호와 파견·유

입 과정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박간성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발판삼아 베트남 박간성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농작업 참여자 교육, 교통·숙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인력을 중개하는 ‘체류 외국인 영농작업반’ 확대 운

영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현재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으로 호남직업전문학교 등과 연계해 배작업 특화 전문 인력을 양성, 농번기·수확기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통해 총 255명의 계절 근로자 배정을 법무부에 신청한 상태다.

김영만/기자

영광 e-모빌리티 기업, 2022 베트남 농기계 및 농업기술 엑스포 참가

영광 주력 분야인 농업 관련 e-모빌리티 제품 수출 방안 모색

영광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2022 베트남 국제 농기계 및 농업기술 엑스포’에 영광 e-모빌리티 기업들이 참여하여 판매에서 생산된 e-모빌리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홍보와 베트남-한국 기업 간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엑스포 참석 첫날인 12월 7일에는 참여한 기업들을 대표하여 영광군 대마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베트남 빈중성 한인 상공인협회와 e-모빌리티 기업의 빈중성 진출 및 투자를 위한 지원과 공동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고사업 참여 등을 통해 국산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내 농업 관련 e-모빌리티 제품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목포시, 2022 목포문화도시 문화향구페스타 개최

13~14일 신안비치호텔에서 법정문화도시 지정 1년 성과 홍보

목포시가 오는 13~14일 신안비치호텔에서 ‘2022 목포문화도시 문화향구페스타’를 개최한다.

‘목포 문화의 파도 시민과 출렁이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목포시가 지난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올해 진행한 1차년도 문화도시 22개 분야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학술행사, 성과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3일에는 오후 2시 개막식으로 막을 여는 가운데 ‘문화도시의 방향, 정책, 성과창출의 의미’, ‘성공적인 문화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문화도시 목표! 가치 같이’ 등의 문화도시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14일에는 ‘문화재물학교와 전남지역 5개대학 대학생 로컬 관광크리에이터 워크숍’, 토크콘서트 ‘목포문화 예술을 말한다’가 진행되며 목포 출신 문학인들의 시를 노래로 작사한 ‘목포 시를 노래하다’와 목포 문화의 날 운영 성과물 등이 시연되며 생활장인들의 솜씨 체험, 장인들 공예품 배우기, 차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문화 체험은 13일, 14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정해영/기자

무안군, 낙지자원 조성을 위한 어미낙지 방류

전남 무안군은 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의 자원조성을 위해 낙지조업이 마무리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약 11,500마리의 어미낙지를 탄도만 일원에 방류했다.

이번 방류된 낙지는 내년 봄 산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20년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지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어미낙지를 방류하는 등 낙지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탄도만 일원에 낙지가 산란할 수 있는 서식장을 4개소 조성하고, 금년에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금어기 기간 동안 어미낙지 31,000마리와 먹이생물인 칠게 800kg를 방류해 자연산란을 통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금년 낙지 조업량은 11월까지 목표수현의 83.000%가 기준을 넘어, 이는 목표수현위판장 관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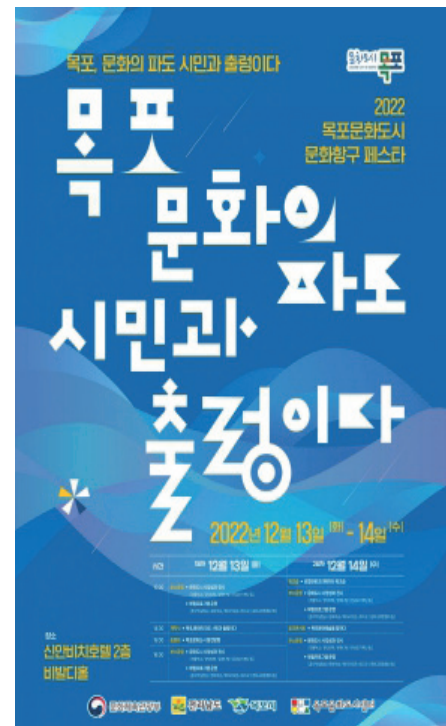
안, 목포, 해남, 진도, 신안)에서 위판된 전체 낙지(4,150천마)의 40%의 어획량을 차지하는 양으로 지속적으로 자원 조성한 결과라 여겨진다.

관내 어업인들은 “전년 대비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 걸 체감할 수 있었고, 평균 위판가격도 적당 13만원 정도로 높게 형성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은 2023년부터는 산란·서식장을 2개소 더 조성해 총 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낙지목장도 3개소에서 1개소 더 늘려 총 4개소를 운영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자원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낙지는 양식이 되지 않고 기온과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산란과 부화율이 낮아 인위적인 자원조성은 한계가 있어 어업인 스스로가 남획을 금지하고 금어기 준수, 어린낙지 방생 등 자율적인 자원조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광남/기자



-남원시 '축소 위기' 노인복지사업, 남원시 자체 예산 358백만원 투입해 현행 유지-

-남원시 지역화폐도 정부예산지원 관계없이 올 수준 11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를 그대로 유지-



남원시가 2023년도 정부 복지예산 삭감으로 축소 위기에 놓인 노인 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에 자체 예산 358백만원을 편성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감소하면 생계유지가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이 우려되고, 경로당 양곡지원이 감소하면 코로나 19 방역규제 완화로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의 양곡 부족과 박탈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정부의 2023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경로당 양곡지원사업량 축소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관계부서에 2023년도 전체 사업량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의 2023년 복지예산 축소로 2023년 공익형 노인 일자리 248명이 줄어들어, 남원시는 국비 미지원분에 대하여 자체 예산 253백만원을 투입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2022년

3,9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등록 경로당 495개소에 대한 정부의 양곡 지원이 1포로 축소됨에 따라 자체 예산 105백만원을 투입해 양곡 4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 남원시는 내년도 지역화폐 '남원사랑상품권'도 올해 수준인 11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최경식 시장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남원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더더라도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에

산울 삭감하면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이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발행한 960억 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에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 보상액과 발행비용 등 15억원을 편성, 140억 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시 자체예산 120억원을 들여 1100억 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발행된 남원사랑상품권은 첫해에 120억원을 비롯 2020년 1140억 원, 2021년 860억 원, 올해 743억 원으로 모두 286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원사랑상품권은 2019년 3월부터 시행하여 판매액은 2019년 120억원, 2020년 1,140억원, 2021년 860억원, 올해 1,230억원으로 총 판매액이 3,350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남출/기자



충청남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성과·우수사례 공유

도, 8~9일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위한 통합 워크숍' 개최

충남도는 8일과 9일 태안 아일랜드 리움에서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혜기업 간 기술 협력·정보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와 충남테크노파크, 사업 수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세미나, 사례 발표, 간담회, 교류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첫날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도 정책 및 모빌리티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3개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수혜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사업 △차량용 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기반 구축사업이다.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혜기업 중 자동차 부품 정밀가공 전문기업 A사가 세계화 지원사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내년 5월 양산 및 납품 계약 성과를 거둬 연간 약 30억 원 이상의 매출 성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기업 B사는 융합형 전



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사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국제안전기준(ISO26262) 대응 컨설팅으로 중국 2개 기업과 연 5만 대, 4만 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내년 말~2024년 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연간 약 50억 원 수준의 매출액 증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도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내년도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 전환 지원 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혜기업 간 지원 성과를 살펴보고 산업 정보를 교환하는 교류회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국내의 미래차 관련 최신 정책과 제도 등을 습득하고 기업 간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회,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영월 운탄고도 1330 1~3길, 2022년 친환경 추천여행지 강원도 유일 선정!

영월군은 '영월 운탄고도 1330 1~3길'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관광 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2022년 친환경 추천여행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친환경 추천여행지' 발굴 및 선정 사업은 지역별 저탄소 여행 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여행지를 선정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 대상 여행 매력도, 친환경 여행 지속가능성, 친환경 여행 가치 확산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평가했다.

올해 선정된 친환경 추천 여행지는 전국 총 25개소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영월군의 '운탄고도 1330 1~3길'이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다.

운탄고도 1330은 과거 석탄을 싣고 달리던 차들이 오가던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연결한 친환경 걷는 길로 영월에서부터 정선, 태백, 삼척까지 이어지는 해발고도 1,330m, 총 길이 173.2km에 달하는 아름다운 숲길이다.

이 중 선정된 운탄고도 1330 1~3길은 영월군 구간으로 지난 10월 1일 개통식 이후 '운탄고도 마을호텔'



TV예능 프로그램 방송과 '운탄고도 1330 느리게 걷기', '영월 운탄고도 에코 하이킹' 등의 다양한 행사 진행을 통해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 불리며 많은 트레킹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선정된 여행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추천 여행지' 테마 페이지를 오픈하고 다양한 이벤

트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영월의 운탄고도 1330 1~3길이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트레킹 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동해시, 묵호항 배후지역 '새뜰마을사업' 신규 공모 도전

2023년 ~ 2026년(4년) 60억원 투입

동해시가 낙후된 묵호항 배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신규 공모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묵호항 배후지역은 수십년간 낙후되면서 지난 3월 산불피해까지 입었던 지역으로,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된 지역의 안전과 재난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시는 60억원을 투입하여 묵호진동 90-37번지 일원(묵호항 배후지역) 등 산불피해지역을 포함한 13만5000㎡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의 눈골담길과 도깨비골 스카이벨리, 덕장마을 문화관광지를 비롯해 지난해 준공된 묵호 연덕빌딩촌 지구 새뜰마을사업지역 등 주변 여건과 최대한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묵호항 배후지역의 빈집과 노

후주택 정비, 소방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달 대상 사업지에 대한 강원도의 사전 컨설팅을 마쳤으며, 현재 2023년 새뜰마을사업 공모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는 ▲시군 신청서 작성(2023년 1월까지) ▲대상사업지 서면 및 현장평가(2023년 2월까지) ▲2023년 3월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마을은 4년간 최대 농어촌형 15억 원, 도시형 30억 원의 국비

를 지원받아 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주택 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규 도시정비과장은 "묵호항 배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효과 확보를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청주공항 국내선 이용객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 개최

1997년 개항 이후 첫 '국내선'...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달성

청주시는 충청북도, 한국공항공사와 9일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1층에서 청주공항 국내선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유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장, 신학휴 청주시 경제교통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고객감사항공권 증정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주공항 특화메뉴 시식회를 실시하고 시와 충청북도가 관광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주공항은 2019년 연간 이용객 300만 명 달성 이후 코로나19로 국제노선이 중단된 상황에서 1997년 개항 이래 국내선 연간 이용객 300만 명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내년 1월 예정된 국제선 취항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은 현재 청주-제주 노선에 일일 49편(6개사)을 운항하고



있으며, 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과 공항 인프라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학휴 경제교통국장은 "청주시는 충북도 및 한국공항공사, 항공

사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국제노선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정선군, 국민고향 정선 산두베 페루 6개 시와 스마트 농업 분야 MOU 체결



국민고향 정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산두베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신임 페루 6개 시 시장 혁신경제교류 협력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체결된 업무협약으로 산두베는 페루 신임 시장단에 스마트 농업 분야 연구 협력 및 사업화 추진 사업을 발굴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농업 등 분야의 양 당사자간 교류 △스마트 팜 기술의 수출 및 농산물 수입 △농업관련 근로자 파견 △농업 등 분야

맞춤형 협력 사업 발굴 및 다음 단계로 진행을 위한 협력 △기타 농업 관련 산업의 정보 교류에 관한 협력 등이다.

아우구스토 카요 카요(AUGUSTO CAYO CAYO)신임 시장은 "페루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농업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통해 페루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며, "농가의 자립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홍길 대표는 "이번 페루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선진화된 농업기술 등을 전파하는데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며 "스마트팜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 정선군에 설립한 산두베는 전통적인 영농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생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조혜영/기자

'대전 0시 축제'밈그림 나왔다!

대전시,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민선 8기 이상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의 하나인 '대전 0시 축제' 밈그림이 나왔다.

대전시는 9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상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0시 축제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0시 축제'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경제 활성화형 축제.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를 지향하면서 글로벌 관광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이다.

보고회에서는 과거 교통 요충지로서의 대전역 명성과 대전부르스라는 가요의 노랫말이 대전 0시 축제 모티프가 된 만큼, 대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가 제안됐다.

우선 시민참여형 콘텐츠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관악대·패션·과학 등을 소재로 한 길거리 퍼레이드 ▲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펼치는 프린지 페스티벌 ▲대전 부르스 가요를 소재로 한 창작 로드 뮤지컬과 마당극, 가요 리메이크 경연대회 ▲유명 유튜버가 진행하는 골목골목 크리에이터 등이 제안됐다.

또한, 과거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는 ▲대전 0시 루미나&파사드 ▲대전 0시 타임머신 열차 ▲대전 0시발 패스 승차권 발행 ▲디지털로 만나는 아날로그 대전 ▲공포 체험 프로그램인 대전행 다크 투어존 ▲복고 오락실 게임대회 등 과거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밀가루 음식을 소재로 한 ▲대전 0시 밈 축제 ▲뽕·수제맥주 페스티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도 제안됐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주요 축제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시민 대상 콘텐츠

설문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과 집필진들의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했다.

대전시는 이달 안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축제추진위원들의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내년도 축제 콘텐츠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우 시장은 "대전 0시 축제는 우리 시가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관광도시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연구용역 성과를 토대로 알차게 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해 100만 명이상의 외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내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옛)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원호/기자

완주군 이강훈 전라북도4-H연합회 감사,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본상' 수상

우수 청년농업인 꼽혀... "완주 농업·청년 농업인 육성 힘쓸 것"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전라북도4-H연합회 감사가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에서 이 감사는 우수 청년농업인에 뽑혀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미래 농어촌을 이끌어갈 만39세 이하의 농어촌후계자 육성·발굴을 위해 농어촌 정착을 위한 우수 청년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강훈 감사는 지난 2016년 완주군4-H연합회에 가입해 활동한 이래 5년간 회원 및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4-H회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사무국장,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라북도4-H연합회 감사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감사는 "이번 시상은 우리 완주군의 청년농업인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활용해 강한 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완주(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주군에 자랑스러운 청년농업인이 있어 완주 농촌의 앞날에 청사진이 밝아 기쁘다"며 "앞으로 완주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진주시, '제2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수상

예비귀농인 농촌 적응과 농업기술 습득 지원으로 귀농 활성화에 기여해

진주시는 9일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제2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像)'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은 농업이 농업 발전과 귀농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에서 8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한다.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도약하기 위해 예비 귀농인에게 농촌 적응과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진주시는 귀농 실현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년 간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조성하여 예비 귀농인과 가족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적응 기간을 두었으며,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작물 재배기술, 현장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이전



하여 진주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도시민들의 농업 인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설치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했으며, 진주시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규일 시장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인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농업 발전과 귀농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귀농 정책을 펼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귀농인의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광용/기자

전라남도, '김대중 대통령의 날' 제정한다

박문옥 전남도의원, 12월 10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 맞아 기념일 지정 조례 발의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2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기념일 지정 조례가 발의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목포3, 민주당)은 9일,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문옥 의원은 "22년 전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헌신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용기를 세대가 평가한 날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정신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전라남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향한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정의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사업과 운영, 김대중 대통령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대중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이나 개인, 단체 등에는 포상도 주어진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게 될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제주시 탐라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탐라도서관은 2020년부터 특화분야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독립출판'을 주제로 참여했으며 올해로 3기를 맞았다.

'제주독립출판 제작'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직접 글을 쓰고 편집과 디자인, 인쇄 과정 전반을 진행하는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매년 ▲ 2022년 제3기 21권 ▲ 2021년 제2기 25권 ▲ 2020년 제1기 21권의 책을 완성해 총 67권의 독립출판물을 출간했다.

우수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한 전국 300여 개 도서관 중 사업 평가연구 심사를 통해 단체



분야 문체부장관상 3개관, 한국도서관협회장상 20개관이 선정됐으며, 탐라도서관은 올해 문체부장관상을 비롯해 2019년, 2020년에 한국도서관협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탐라도서관 사업 담당은 이번 수상

을 통해 앞으로도 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주독립출판물 제작' 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나간다고 밝혔다.

곽건/기자

www.gy1pick.kr

모바일 고양소식지의 새이름 고양원픽

맛한 소식과 정보를 원해? 모바일로 픽해!

고양원픽

GOYANG ONE PICK

고양원픽.kr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서비스로봇 모델하우스로 활용!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 서비스로봇 시장창출 앞장서

대구시는 서비스로봇 시장창출 및 시민체감도 증진을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대구역 역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안내·방역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실증에 착수하고, 2023년 상반기 서대구역을 대상으로 정부공모 '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주요 관문인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에서는 앞으로 서비스로봇을 만나볼 수 있다. 대구시는 서비스로봇 시장창출 및 시민 체감도 증진을 위해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대구역 : 안내·방역 로봇이 보인다.]

대구시 최대 관문인 동대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안내·방역 등 다수의 서비스로봇을 실증·보급하고 관제플랫폼 및 충전부스 등 로봇 인프라를 구축해,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로봇산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안내로봇은 역사 내 시설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로봇은 3중 방역 서비스(▲공기청정, ▲UVC 살균, ▲플라즈마 살균)를 통한 감염

병 예방 및 쾌적한 역사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로봇관제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로봇들을 실시간으로 관제해 로봇의 오작동 및 고장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대구역 : 2023년 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도전]

서대구역을 대상으로는 로봇통합 관제시스템 및 다중·다수의 서비스로봇을 활용하는 로보틱스 역사 실증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하는 '2023년도 AI·5G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거점 확대]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대구미술관, 동대구역, 서대구역 등 다양한 지역거점을 활용한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기업 및 투자유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거점을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역내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업들의 실증·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

구미시는 12월 08일 17:00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투자 현장 현안 청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 투자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30초 투자유치를 향한 마라톤의 연장선으로 지역 투자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투자 애로 사항 접수와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빈으로 김현도 삼성전자(☎) 부사장과 에스케이실트론(☎), 엘지이노텍(☎),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시스템(☎) 등 대기업 임직원을 비롯하여 지역 투자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해 최근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교환율)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리스크 확대에 따른 투자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구미경제 현안과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KEC 강세영 경영기획그룹장의 '기업이 본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타당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에스케이실트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엘지이노텍(☎) 등 유수의 반도체 소재·부품 연관 기업이 구미시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 달성'이라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공

감대를 이끌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 세계가 스테그플레이션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에 감사를 표하며 구미시는 '투자하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 교통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적극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에스케이실트론(☎), (☎)원익큐엔씨 등 잇단 반도체 선도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K-반도체 벨트 영남권 확장'과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엘아이지세원(☎), 한화시스템(☎), (☎)삼양컴텍 등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 분야 기업 투자유치로 K-방산 메카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키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힘쓰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봉원기자



경북도, 기업맞춤형 SW인력양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대학·참여학생 컨소시엄 SW개발 실무형 인재양성... 취·창업 연계

경상북도는 지난 7일 오후 경산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경북형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성과 3개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선정된 팀은 영남대학교 스마트스캐닝,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라이브하우스팀, 경운대학교 Fortuna팀이다.

대상은 영남대학교 스마트스캐닝에서 개발한 '실러 도포 불량 검사 방법 및 시스템'으로 자동차 글라스에 도포하는 실러의 불량도포 검사 시 하드웨어 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곡선구간 검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라이브하우스팀의 '폐배터리를 활용한 무선 충전 재난 조명프로그램'으로 이차전지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청각장애인도 재난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장치 구동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제품을 제작했다.

우수상은 경운대학교 Fortuna팀의 '딥러닝 상황 인식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인식 SW'로 기존 CCTV를 활용하여, 영상인식 및 상황인식을 위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 단일 카메라로 다차로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검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날 성과 공유대회는 지난 5월부



터 기업·대학·참가학생으로 구성된 총 10개팀, 50명의 참여자가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참여팀별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PT 발표를 하면, 심사와 함께 결과물의 사업과 가능성에 대한 모의투자 컨설팅도 병행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6인의 심사위원들이 과제 기획력, 추진내용, 성과확산 등 3개 분야 6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수상한 우수 3개팀에는 총상금 300만원(대상 150, 최우수 100, 우수 50)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AI, VR, AR, IOT 기반의 기술로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각 기술 관련 정보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나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수적인 시대,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실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역량강화를 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참여팀은 반드시 기업이 실무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기업 멘토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기업 맞춤형 실전형 중급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뒀 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한 영남대 이경문 학생

은 "프로젝트 참여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얻을 수 없었던 실무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수급 상황을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으로도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며, "사업에 참여하신 많은 인재들이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역의 우수 기업과 취업으로까지 연결돼 경북 소프트웨어산업 주역으로 활동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충북경자청, 에어로폴리스 활성화를 위한 2022 UAM 산업포럼 개최

산·학·연·관 관계자 130여명 모여 미래 UAM 산업발전 방안 모색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11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직지홀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22 도심항공교통(UAM) 산업포럼』을 개최했다.

* UAM: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이번 포럼은 작년 산업포럼에 이어 2년째 개최됐으며, UAM 테크리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 오전 세션에서는 항공안

전기술원의 'K-UAM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로 미래 UAM 산업 생태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 항공산업 육성(충북경자청), △충북 드론·UAM 연구센터 사업추진 현황(청주대학교), △UAM 사업 추진현황(엘지유플러스), △UAM 시스템 안정성 분석 방안(현대자동차), △eVTOL UAM 항공기 테크리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산·학·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전한 상황화 및 조속한 산업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

맹경제 경자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북도는 UAM 산업의 상용화에 있어, 국토의 중심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입지"임을 강조하며, "향후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과 연계해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비용 예측 연구(서울대학교), △UAM 운항과 교통관리(대한항공)에 대한 주제발표가 차례로 이루어져 산업계와 학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UAM 안

립 타당성 연구를 통해, UAM 핵심부품 성능평가 및 스타트업 지원,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UAM 전문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할 지역 특화형 연구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

충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UAM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지역 산업계와 학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 UAM을 포함한 미래항공 모빌리티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핵심기술 정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김해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R&D 우수 성과 창출 특목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2022년 김해시 중소기업 핵심기술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10여년간 지속되어 온 김해시 대표 장수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창의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한 사업화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기술 습득·기술개발 기획·해외시장 모니터링·기술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연

계형 기술정보조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핵심기술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사업 소개 등으로 참여기관의 호응을 얻었으며, 참여 기업간의 교류의 장 마련으로 향후 사업의 성과확대를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김해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하여

앞으로 다각도로 변화하는 정부 정책 및 대내외 환경에서 김해시 관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경영전략에 대하여 심도있게 집중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성과공유 기업인 (☎)경동냉열 산업(대표 여성동)과 (☎)에이엔티(대표제정철)는 해당 지원사업으로 다수의 특허등록, 공모사업 선정 등의 효과성과 활용성을 특목히 보여줌으로써 김해시와 진흥원의 사업성과의

본보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타 중소기업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

진흥원 홍성욱 원장은 "핵심기술 맞춤형 정보 지원사업은 그동안 김해시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하는 진흥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충남도-오리온 농산물 유통 상생 협력

도-오리온-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농산물 공급망 확대 협약 체결

충남도와 오리온,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가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 김태홍 지사와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 이종욱 농협충남지역본부장이 '농산물 공급

확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오리온, 농협충남본부는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충남산 감자를 활용한 오리온 제품의 생산·판매·홍보에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오리온은 우수종자 공급 및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한편, 연간 소요량 중 충남산 감자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신제품 출시 시 충남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용품목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오리온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농업·농촌과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농협충남본부는 산지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지원 등 오리온에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도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2015년 10월 이마트를 시작으로 이번 오리온까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0곳이다.

김 지사는 "농식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역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며 "도와 오리온, 농협충남지역본부의 상생협약이 농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사랑의 이해' 유연석-문가영, 불안전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표현할 두 사람의 멜로 호흡은? 커플 포스터 공개!

교차하는 시선 속에서도 감정이 느껴지는 '사랑의 이해' 수수(하상수-안수영) 커플 포스터가 공개됐다.

JTBC 새 수목드라마 '사랑의 이해'(극본 이서현, 이현정, 연출 조영민, 제작 SLL)는 각기 다른 이해(利害)를 가진 이들이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理解)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드라마.

유연석은 '사랑을 일평생을 유지하는 상수'라고 여기는 은행 계장 하상수로, 문가영은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고 생각하는 은행 주임 안수영으로 분한다. 설렘을 느끼지만 선뜻 다가가기 망설여지는 사랑이란 감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낼 공감 멜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연석(하상수 역), 문가영(안수영 역)이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포스터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따스한 눈빛 속에서 애뜻함과 다정함이 느껴지고 있지만 '당신은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나요?'란 질문은 마냥 달콤하지 않은, 보는 이들에게도 사랑에 대한 물음표를 남긴다.

이렇듯 상대방으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는 하상수(유연석 분), 안수영(문가영 분)이 불안전하지만 불가항력적

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유연석, 문가영의 멜로 호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연석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장면이 많다. 문가영 배우와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캐릭터와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평소에도 문가영 배우의 좋은 에너지 덕분에 촬영 현장이 화기애애하다."

하지만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굉장히 집중력 있게 배역에 몰입해 저역시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며 문가영을 향한 강한 믿음을 표했다.

문가영도 유연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늘 편찮은지, 불편한지 아닌지 살피는 많은 배려와 섬세함 덕분에 편안하게 촬영하고 있다. 또 서로 상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나눈다. 함께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해 두 배우가 나눌 연기 호흡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유연석, 문가영이 선보일 멜로 케미스트리가 기대되는 JTBC 새 수목드라마 '사랑의 이해'는 오는 12월 21일(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재벌집 막내아들' 야망 드러낸 송중기 VS 순양家, 불꽃 튀는 승계 싸움 완성할 2막 관전 포인트

'재벌집 막내아들'이 예측 불가의 후반전을 연다.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연출 정대운·김상호, 극본 김태희·장은재, 제작 SLL·레몽레인·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전문회사)이 오늘(9일) 방송되는 9회를 기점으로 2막 돌입한다. 첫 방송 이후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독보적인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순양의 주인 자리를 둘러싼 승계 싸움 역시 달아올라 것이 예고됐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 순양을 위해 장자 승계 원칙을 없애고 모두를 싸움터에 밀어넣은 진양철(이성민 분)이, 이에 진도준과 진영기(윤제문 분), 진동기(조한철 분), 진화영(김신록 분) 삼남매가 완력적인 적으로 돌아선 지금, 이들이 펼칠 내일 없는 승부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 이에 격변하는 후반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순양의 주인' 기회 얻은 송중기의 다음 행보는?

순양의 방패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디지털미디어시티 프로젝트는 진도준의 묘수로 되살아났다. 대영그룹까지 끌어들이는 그의 대답함은 진양철을 분명 분노케 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즈음 뇌에 생긴 이상을 발견하며 내면에 큰 변화를 맞이했던 진양철은, 결국 진성준(김남희 분)의 결혼



식에서 장자 승계 원칙을 거두겠다는 선언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얻었지만, 남매들 모두 이 이익이 진도준을 염두에 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진화영을 시작으로, 진도준을 타깃 삼은 순양가의 맹공이 예고된 상황. 이를 뚫고 나갈 진도준의 총력전에 궁금증이 쏠린다.

또한 머릿속에 자리한 시한폭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양을 향한 욕망을 끌어안고 있는 진양철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도 궁금해진다. 위태로운 이들 가족이 만들 새로운 그림에 이목이 집중된다.

고 있다는 점 역시 관심을 모은다. 순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윤현우가 유일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4-2', 진도준은 2020년대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렇기에 더욱 격화될 싸움 속에서 진도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직 베일에 싸인 운명의 전말이 궁금해진다.

'순양가 잡기 위한 동행' 예고한 송중기X신현빈, 또다른 관계성 시작될까

'순양의 저승사자' 서민영(신현빈 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진도준에게 있어, 뜻밖한 대학생 서민영은 흥미로운 상대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뒤 진도준은 더욱 복수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서민영 역시 감정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때문에 공개된 9회 예고편 속, 시간이 흘러 검사와 제보자로 재회한 이들의 모습은 궁금증을 한층 증폭시킨다.

이들은 스페셜 포스터에서도 '순양가'를 잡는 동행'을 예고, 새로운 관계성을 기대케 했던바, 진화영부터 시작해 순양의 내부를 부수기 시작한 이들이 어떤 공조를 펼칠지, 그 끝에서 각자의 목표인 '복수'와 '정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9회는 오늘(9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커피콜' 강하늘X하지원, "누나 괴롭히지 마쇼" 심땀 엔딩 탄생 비하인드 대공개! 웃참이 더 어려운 '퐁냥 커플'!

'커피콜'이 웃음부터 긴장까지 다채로운 촬영 분위기가 담긴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박세연(하지원 분)이 가짜 동생 유재현(강하늘 분)의 정체 폭로 엔딩으로 화제를 모았던 KBS 2TV 월화드라마 '커피콜'(연출 윤상호/극본 조성결/제작 빅토리콘텐츠) 9.10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이 공개됐다.

9.10회 비하인드 영상에는 배우들이 캐릭터에 완벽 몰입돼 디테일한 감정 표현 연기를 선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공개된 강하늘과 하지원의 투샷은 북에서 온 사촌 동생 유재현이 무명의 연극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세연이 대면대면하게 구는 모습이 다.

강하늘은 평소 잘 놀라지는 하지원을 위해 살짝 다가갔으나 결국 대실패. 진지한 와중에도 숨길 수 없는 장구미까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배우 지승현과도 촬영 중간 중간마다 즉흥 애드리브로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특히 10회에서 화제를 모았던 손목 엔딩씬의 탄생 비하인드도 공개됐다. 유재현이 자근순의 손자 리문성을 개고자 박세연을 괴롭히는 기자에게 다가갈 일침을 날린 뒤 박세연의 손목을 잡아 현장을 빠져나가는 엔딩 장면. 분방송만금이나 박력 넘치는 유재현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 유재현의 돌발 행동에 박세연도 숨겨왔던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상황. 하지원은 화가 치밀어 오른 모

습을 쏟아내다가도 강하늘 눈만 쳐다봐도 웃음이 터지는 퐁냥 케미를 드러냈다.

또한 특별 출연으로 작품과 화면을 빛낸 배우들도 비하인드 영상에 포착됐다. 리문성의 아내 진숙 역을 맡은 배우 백진희는 본촬영이 진행되기 전부터 캐릭터에 스며든 모습으로 윤상호 감독의 감탄을 자아냈다.

리희설 때 맞았던 동작들까지 착착 선보이며 특별 출연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한 것. 배우 노상현도 리문성의 가슴 아픈 과거사를 보여주기 위해 평소보다 한층 더 진지해진 분위기로 캐릭터의 결을 살렸다.

촬영을 마친 백진희는 "감독님과 노상현 배우가 편하게 대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중요한 장면인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커피콜'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호텔 낙원 손자 리문성의 존재를 파헤치려는 해랑일보 열혈 기자 역으로 특별 출연한 김강현도 베테랑 배우답게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김강현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다. '커피콜'에 잠깐 출연했지만 대본이 너무 탄탄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달라"고 인사를 남겼다.

이처럼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과 화기애애한 호흡이 작품성으로도 빛나는 드라마 '커피콜'은 매주 월화 밤 9시 50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황지원/기자

영탁,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 콘서트 출연 "글로벌 행보" 주목

가수 영탁이 인도네시아 팬들과 만난다.

영탁이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 콘서트에 출연한다. 본 공연은 오는 10일 현지시간 오후 2시 30분, 자카르타에 위치한 Istora Senayan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는 한국 가수가 인도네시아의 K-POP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 매년 개최하는 콘서트이다. 지난 공연 이후 약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크고 화려한 규모로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5천여 명의 관객들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국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외로 팬층을 확장시켜 온 영탁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오는 1월 미국 투어 역시 앞두고 있

다. '찐이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신사당개' 등 수 많은 히트곡으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은 영탁이 이번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인도네시아 팬들을 만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공연에는 영탁을 비롯하여 트레저, 자이언티, 준케이 등이 출연,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들로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무대를 꾸릴 예정이다. 영탁이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일 'K트롯트'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2022' 공연에 출연하는 영탁은 오는 1월 11일 애틀랜타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뉴욕, 19일 샌프란시스코, 22일 로스앤젤레스(LA) 등 미국의 4개 도시를 방문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비아이, 'BTBT'로 나일론 '2022 베스트'·애플뮤직 '최다 검색' K-POP송 선정



아티스트 비아이(B.I)가 또 한번 글로벌 음악 선의 인정을 받았다.

비아이의 글로벌 앨범 프로젝트 첫 번째 EP 'Love or Loved Part.1 (러브 오어 러브드 파트원)'의 선공개 싱글 'BTBT'는 최근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나일론이 선정한 '2022 Best K-POP', 글로벌 음원 플랫폼 애플뮤직이 발표한 'Most shazamed kpop song'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일론은 분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 Best K-POP' Song 부문에 가장 먼저 'BTBT'를 소개하며 "노래로 분위기를 묘사하는 곡이다. 사랑에 취한 사람처럼 잠잠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즉각

적인 매력을 전달한다"라고 호평했다.

애플뮤직의 'Most shazamed kpop song'은 세계 최대 음원 검색 어플리케이션인 Shazam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곡으로 구성되었다. 'BTBT'가 포함된 해당 명단이며 영국 NME 등 주요 매체에도 보도되는 등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음악 차트를 휩쓴 'BTBT'로 시작된 비아이의 글로벌 앨범 프로젝트는 첫 번째 EP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첫 번째 EP에는 타이틀곡 'Keep me up (킵 미 업)'을 비롯해 완성도 높은 총 5곡이 수록됐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음악 팬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0시 비아이는 'Love or Loved Part.1'의 두 번째 다큐멘터리 필름을 게재하고 재킷 촬영 현장, 안무 연습 현장,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등을 공개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비아이는 "춤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 중 하나"라며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비아이는 계속해서 다양한 글로벌 활동으로 음악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2022 ALL DAY SHOW 'L.O.L : THE HIDDEN STAGE (더 히든 스테이지)'를 개최하고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

최재은/기자

진주시, 소각 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진주시는 이달 15일까지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하여 산불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진주시 산림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대를 활용하여 관내 26개 읍면 및 산림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연접지 소각행위를 광범위하게 단속함으로써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산불에 대비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하여 일몰 후 비행훈련과 실시간 영상 전송 등 자체 훈련으로 드론감시단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산불 발생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드

론 감시는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 산불 초동진화와 뒷불 감시에 유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가 산불발생 원인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작은 관심과 주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 ~ 12월 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연말연시 앞두고 중구청과 합동으로 명동·동대문·남대문 상권 중심 집중단속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천만 원) ▲가방 191개(4억 5천만 원) ▲지갑 273개(3억 2천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천6백만 원) ▲신발 23개(4천1백만 원) ▲안경 48개(2천5백만 원) ▲골프채 24개(1천2백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시민들 접근이 쉬운 지하상가에서 짝퉁 명품의류 판매'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지하상가에서 짝퉁 판매가 적발됐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D씨는 정품가 158만 원 상당 명품의류의 위조품을 7만 원가량에 판매했고, '○○'를 운영하는 피의자 E씨는 정품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를 5만 원가량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국내 의류 제조 공장에서 280여 점의 위조상품 제작' 국내 제조 공장에서 직접 위조의류를 제조·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생산단가 문제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은평구 ○○동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8천3백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상품 280여 점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3.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등 신판매업자 등록하여 위조상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 ○○에서 유명 골프의류를 정품대비 훨씬 저렴한 5만 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했고, 수사관이 직접 의류를 구매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품 추가가 3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적발됐다.
4.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천 300만 원 상당의 명품 짝퉁 판매' ○○○시장 인근 '○○○○명품'에서 짝퉁을 팔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접수되어 현장을 탐문한 결과, 가방, 지갑, 신발 등 다수의 위조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피의자 C씨는 정품 추가가 1억 4천300만 원 상당의 상품 72점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5.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

린 장터에서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린 장터 '○○'에 판매업 등록을 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F씨의 짝퉁 거러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여 개 유명 상표의 가방, 의류, 신발 등 500여 개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이 기소유어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비자 연장이 안 될 수 있음에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



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구청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 시간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 추진

인천광역시 동구가 불법 입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입간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목재, 아크릴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 1.2m 이하, 한면 면적이 0.6㎡ 이하, 바닥면은 가로 50cm × 세로 70cm 이하의 규격을 준수해 제작하고 구멍에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관내에 불법 입간판 및 에어컨 라이트(풍선광고물)가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올해 연말까지 사전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고가 가능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불법 입간판의 광고주에 대해 계고장을 송부하는 한편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불법 입간판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여주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여주시는 지난 8일 여주휴게소 상행선(인천 방향) 입구, 주차장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0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 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8백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요즘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성실납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시의 지속적인 안전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

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이성욱/기자

함안군, 하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함안군은 김장철 등 농산물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업소이며,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

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덕수/기자



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잠시 정차도 안돼요!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주세요!

구미시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구미시지체장애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주택 등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건수는 4,138건이며 올해는 3,487건('22. 11월 기준)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주차위반 행위는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표

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합동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선진 시민 의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시민들이 한눈에 알기 쉽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법'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인구 유입이 잦은 관내 부서에 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

한 능동적인 참여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썼다.

이봉원/기자



광진구, 쓰레기 무단투기 잡는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클린지킴이' 확대 설치



광진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클린지킴이'를 60대 추가 설치한다.

'클린지킴이'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가고, 야간에는 환한 조명까지 켜지며 무단투기를 예방한다. 조명은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충전해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

구는 11월 중순, 최근 조사한 동별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위주로 '고정식 클린지킴이' 35대를 설치하고,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부착했다.

또한 이동이 간편해 활동도가 높은 '이동식 클린지킴이' 25대를 12월 중순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클린지킴이는 상습 무단투기가 해소되면 감시구역 밖의 새로운 무단투기 발생 장소로 이동 배치된다.

12월 이동식 CCTV 설치까지 완료되면 구는 총 207대의 클린지킴이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악취,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주민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께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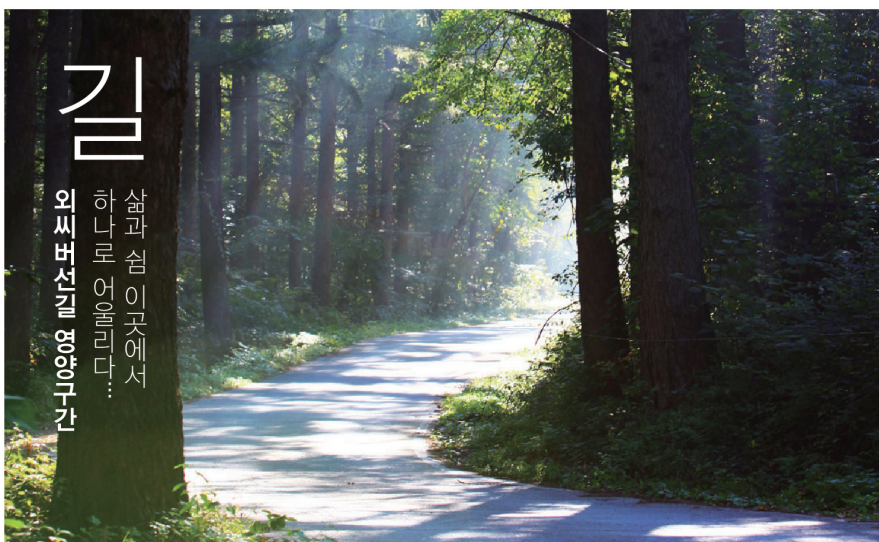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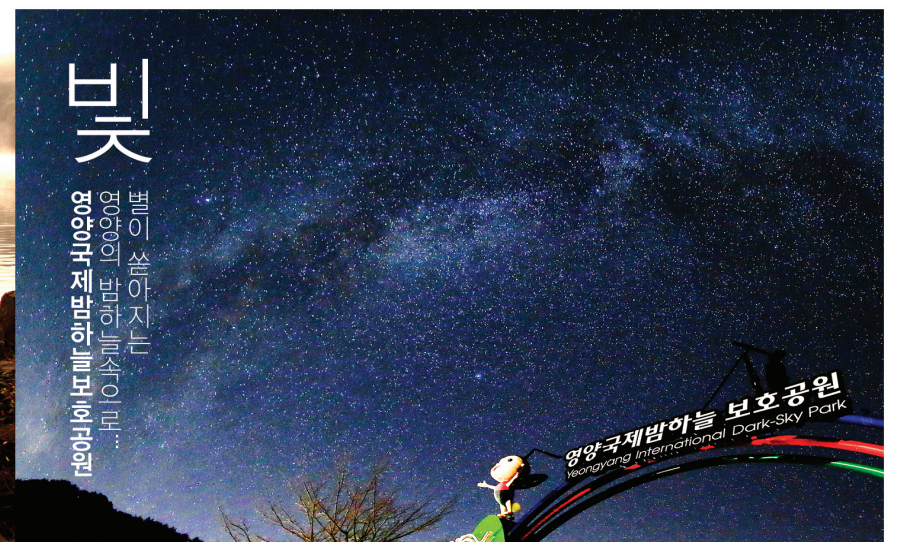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고 영예롭고...
영양대표관광지 영양나들길



물

영양의 푸르네와
영양의 맑은 물...
영양대표관광지 영양수목원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대표관광지 영양수목원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영양대표관광지 영양수목원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 정책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쾌거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 정책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쾌거

서울시가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한옥 보전 정책'이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정책으로 '2022 아시아도시경관상(Asia Townscape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9년 복촌가꾸기 사업으로 서울 한옥 정책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국제상 수상이다.

2010년 설립된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유엔(UN)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후쿠오카 지역사무소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하여 아시아 지역 내 주목할만한 도시, 지역,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경관 분야 국제평가상이다.

심사는 각국 주관기관에서 진행되는 국내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모든 주관기관이 한데 모여 각국 국내 심사 선정작들을 최종 평가하는 국제심사, 총 2단계로 이루어졌다.

올해 한국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 총 9개 기관 단체가 심사에 응모하여 지난 8월 서류심사 4개 사업, 현장심사 3개 사업이 1차로 선정됐다.

지난달 이뤄진 국제심사에서 확정된 수상작은 총 11개국, 국가별로는 한국 3개, 중국 3개, 일본 2개, 홍콩 1개, 베트남 1개, 태국 1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심사에서 2000년 '복촌가꾸기사업'을 시작한 이후 ▲한옥 비용 지원(보조·융자) 사업 ▲한옥 주거지 환경개선 ▲한옥살이 지원 확대 ▲신규 한옥마을(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22년간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해 온 정책, 사업, 성과를 제시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과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심 내 불균형, 도시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서울시 한옥 정책'은 2000년 서울의 대표 한옥주거지 '복촌'을 살리는 복촌가꾸기사업(정책 1기)을 시작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후 한양도성 내·외부(정책 2기), 서울 시내 전역(정책 3기) 등 사업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왔으며 초기에는 물리적 경관(한옥, 골목길 등) 보존·개선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경관(지역 문화, 전통 주거문화) 회복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점차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의 한옥 보전·진흥 정책은 이번 시상 2차 평가인 '국제심사'에서 친환경성, 공존 가능성, 지역 문화·역사에 대한 존중, 지역발전 공헌 등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평가를 맡은 심사단은 서울의 한옥 보전·진흥정책이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의 경관을 개선하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20년 이상 유지해 온 지



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프로젝트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1980~90년대 도시개발로 멸실의 위기에 처한 도시한옥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보존에 들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시한옥을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옥 신축, 신규 한옥마을 조성 등 장려하는 일관된 지원정책을 전개해 온 점도 수상에 몫을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옥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살리면서도 다양성, 창의성을 수용하는 현대한옥의 확장과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할 계획이며, 한옥이 지속 가능한 주거유형이자 미래건축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국제상 수상은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해 서울시가 꾸준히 정책을 이끌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한옥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경관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한옥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래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릉의 국수, 그 가치를 말하다

2022 강릉 누들 축제, 16일 월화거리에서 개최

강릉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월화거리 일원에서 '2022 강릉 누들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릉을 대표하는 전통 국수 요리(장칼국수, 막국수, 짬뽕, 웅심이 칼국수 등)를 한데 모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강릉의 국수문화를 관광상품으로 확장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향후 지속 가능한 강릉의 대표 관광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16일 11시 대한민국 대표 요리전문가인 오세득 셰프의 라이브 쿠킹쇼를 시작으로 17일 개막식 공식 행사인 대형 칼국수 만들기 이벤트와 유명 개그맨 유민상의 먹방쇼, 18일(일) 데이브레이크의 피날레 공연이 펼쳐진다.

강릉의 특색이 담긴 국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라이브 쿠킹쇼에서는 유명 셰프들이 강릉의 국수 요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인다.

또한, 먼치키 영상 콘테스트 등 사전 참여 이벤트와 미각만으로 강릉

유명 장칼국수집을 맞이하는 현장 이벤트, 천연육수 만들기, 국수 반죽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강릉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성남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시장 내에서 구매할 영수증 지참 시 기념품을 증정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시행하고,

관광객이 쉽게 강릉의 다양한 종류의 국수 맛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들맵을 제작·배포하여 누들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축제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여 천연 화분용 비료로 만들어 일회용컵을 수거해오는 관람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릉시 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풍성한 먹거리의 도시 강릉의 국수 문화를 재조명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다양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기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매사냥' 일반에 공개

2022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매사냥 공개행사 개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매사냥' 공개시연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대청호 인근의 한국전통매사냥 전수체험학교에서 개최된다.

대전시 지원으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매사냥 공개행사는 대전시 무형문화재 매사냥 보유자 박용순 응사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진행한다. 매사냥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사냥매들의 퍼레이드, 매를 훈련시키는 과정과 매가 사냥하는 현장까지 확인할 수 있다.

매사냥은 매나 맹금류를 길들여 야생에 있는 사냥감을 잡도록 하는 전통 사냥으로 매가 수천년 동안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발달하여 매사냥의 전통은 6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매사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한 국가에서 공동으로 등재 신청하여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에는 대전과 진안에 시도무형문화재 종목으로

단 2명의 보유자만 있다.

우리 시의 박용순 응사는 1985년에 처음 매사냥을 시작하여 2000년도 대전시 무형문화재 매사냥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이제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무형유산인 매사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30년 가까이 매진하고 있다.

이번 매사냥 공개행사에는 참매를 비롯하여 보라매, 황조롱이 등 박용순 응사와 평생을 함께한 맹금들의 힘찬 날개짓을 실견할 수 있다. 또한 박용순 응사의 손에 길들여진 매가 평을 사냥하는 모습을 매우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용순 응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대청호에서 창공을 가르는 매의 시원한 비행을 보며 그동안 움추렸던 일상에서 벗어나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에버랜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 10일 오픈

- ◇ 패밀리, 레이싱, 익스프레스 등 3개 눈썰매 코스 순차 가동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오직 겨울에만 경험할 수 있는 신나는 눈썰매
- 자동출발대, 튜브이송대, 스마트 줄서기 등 편리하고 안전하게
- ◇ 스노우 야드,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존 마련
- 자유롭게 미니 눈썰매 타고, 이글루 포토존에서 겨울 추억 남기기
- 2023개 눈사람 세상 '스노우맨 월드'도 인스타 인증샷 명소로 인기

□ 에버랜드가 오직 겨울에만 신나게 경험할 수 있는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를 오픈한다.

스노우 버스터에는 총 3개의 눈썰매 코스가 갖춰져 있는데, 오는 10일 패밀리 코스를 시작으로 모든 눈썰매 코스가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2023개 눈사람과 함께 하는 겨울 에버랜드에서는 눈썰매장 뿐만 아니라 스노우 야드,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스노우 액티비티존을 새롭게 선보이며 뽀드득뽀드득 눈 위에서의 즐거운 겨울 추억을 선물한다.

【3개 코스에서 썰썰 눈썰매 체험! 편리하고 안전하게】

□ 에버랜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패밀리 코스부터 레이싱 코스, 익스프레스 코스 등 스릴 강도별 골라 탈 수 있는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그 중 200미터로 가장 긴 슬로프를 보유한 익스프레스 코스는 거대한 원

형 튜브에 최대 4명까지 서로 마주보며 탑승할 수 있는 4인승 눈썰매가 전제 레인에 마련돼 있어 친구, 가족, 연인 등과 함께 스릴을 체험하려는 고객들에게 추천한다.

□ 스노우 버스터는 모든 코스에 자동출발대가 설치돼 있어 편리하게 눈썰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눈썰매장에서는 보통 발로 끌거나 진행요원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출발하지만, 에버랜드 스노우 버스터에서는 고객들이 눈썰매에 앉으면 있으면 컨베이어가 움직이며 자동으로 출발하게 된다.

□ 또한 튜브를 직접 들고 다닐 필요없이 상단까지 운반해주는 튜브이송대, 눈 턱으로 만든 전용 레인, 충격방지용 에어바운스 등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눈썰매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모바일이나 현장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시간대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 줄서기'도 현장 상황에 따라

코스별로 실시될 예정이라 긴 기다림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스노우 버스터는 알파인 빌리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에버랜드 입장객 누구나 별도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양한 스노우 액티비티존, 2023개 눈사람 세상까지!】

□ 눈썰매를 타지 않더라도 눈과 함께 다양한 겨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노우 액티비티존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먼저 스노우 버스터 앞 광장에는 눈썰매 탑승 전 몸풀기를 하며 놀 수 있는 눈놀이터 '스노우 야드'가 오는 10일 오픈한다.

스노우 야드에서는 눈 쌓인 넓은 광장에서 미니 눈썰매를 자유롭게 타볼 수 있으며, 눈사람과 눈오리도 만들고 이글루 포토존에서 멋진 겨울 추억사진을 남길 수 있다.

군구마, 어묵, 꼬치 등 따뜻한 겨울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핫푸드존도



스노우 야드 옆에 마련된다.

□ 또한 알파인 빌리지 입구 지역에는 커다란 열차와 함께 이글루, 빙하, 미니 눈썰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노우 플레이그라운드'가 15일부터 오픈한다.

지난 가을 도입된 초대형 기차 2대가 겨울 시즌을 맞아 스노우맨 익스프레스 트레인 포토존으로 새롭게 선보이는데, 고객들이 기차 내부 객실에 입장해 얼음젠가, 펭귄 얼음끼기 등 다양한 보드게임도 즐길 수 있다.

□ 이외에도 에버랜드는 포시즌스 가든에 2023개 눈사람으로 가득한 '스노우맨 월드'를 지난 1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스노우맨 월드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눈사람을 테마로 각각각색 2023개의 눈사람

세상이 펼쳐지는데, 2030 MZ세대 고객들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래머블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와 공연, 크리스마스 푸드 마켓,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도 겨울 에버랜드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추천한다.

의 코스별 오픈일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verland.com)나 SNS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화성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9대 화성시의회

의장 김경희

부의장 오문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부위원장 김종복
의원 김미영
의원 김영수
의원 장철규
의원 전성균
의원 차순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 박진섭
의원 김영수
의원 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오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 위영란
의원 공영애
의원 배정수
의원 장철규
의원 차순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 김미영
의원 명미정
의원 송선영
의원 이용운
의원 전성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 김상균
의원 김상수
의원 유재호
의원 이계철
의원 임채덕

